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한 광 현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강 상 경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한 광 현

한광현의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위 원 장

이 불 주



부 위 원 장

유 조 안



위 원

강 상 경



국문초록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한 광 현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감에 따라,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 중 청소년기 자녀들의 증가 추세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또한 재혼한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오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과 관련된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외모로 인한 차별이나, 정서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학업적 측면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민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중도입국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부족한 문화적 이해를 도우며, 중도입국 여부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숙고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

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부처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그리고 민간단체 등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아직까지 미흡한 게 사실이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과 관련하여 이론에 근거한 서비스 이용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의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 요인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중도 입국 여부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관련 전국 대표 샘플인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Gelberg 등(2000)의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이용 행동모델(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이하 깰버그-앤더슨 모델)에 적용하여, 구조방정식의 조건부 모형과 다중집단분석기법을 활용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깰버그-앤더슨 모델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유용한 모델인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깰버그-앤더슨 모형의 선행요인 중 나이, 성별, 중도입국여부 변수와 욕구요인에 포함된 한국어취약성, 이중언어유능욕구, 본인이 인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욕구 변수가 각각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나이, 성별, 가구소득 변수에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 집단 간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 서술 또는 기술 통계에 기반을 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해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깰버

그-앤더슨 모형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유용한 틀임을 밝혔고, 유의미한 예측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였다. 나아가 중도입국 여부에 따라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 요인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그리고 상기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의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나이, 성별, 중도입국여부와 같은 선행요인과 욕구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하위 집단에 따라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나이, 성별을 고려한 접근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주요어 :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깰버그 앤더슨 모형,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분석**

**학번 : 2012-20130**

# 목 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문제제기 .....	1
제2절 연구문제 .....	7
<b>제2장 이론적 배경</b> .....	<b>8</b>
제1절 다문화가족 청소년 .....	8
제2절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 지원 서비스 .....	14
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필요성 .....	14
2.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욕구 .....	21
3.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실태와 특성 .....	22
제3절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에 대한 이론적 틀 .....	36
1. 깰버그-앤더슨 모델 .....	37
2.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 이용 예측에 관한 연구 .....	41
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 .....	43
<b>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b> .....	<b>52</b>
제1절 연구모형 .....	52
제2절 분석자료 .....	54
제3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56
1. 종속변수 .....	56
2. 독립변수 .....	56
제4절 분석방법 .....	61
<b>제4장 연구결과</b> .....	<b>63</b>
제1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63

제2절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	70
제3절 다중집단분석 결과	73
<b>제5장 결론</b>	<b>81</b>
제1절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81
1. 분석결과 요약	81
2. 논의	83
제2절 연구의 함의	91
1. 이론적 함의	91
2. 실천적·정책적 함의	92
제3절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96
참고문헌	100
부록 - 설문지	109
Abstract	112



## 표 목 차

<표 2-1>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	29
<표 2-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 .....	31
<표 2-3>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과제 및 책임부처 .....	34
<표 3-1> 분석에 활용된 변수 정리 .....	60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65
<표 4-2> 변수별 왜도, 첨도, 결측값 비율 .....	67
<표 4-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	69
<표 4-4> 최종모형의 모형적합지수 .....	70
<표 4-5>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 .....	72
<표 4-6> 중도입국 여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76
<표 4-7> 중도입국 여부에 따른 구조 동질성 검증 결과 .....	77
<표 4-8>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 다중집단분석 결과 .....	80

## 그 립 목 차

[그림 2-1] 겔버그-앤더슨 모델 .....	39
[그림 3-1] 최종 분석모형 .....	53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제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보다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주를 택해 왔다(IOM, 2013).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이주는 국경을 넘어 국가와 국가 간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데, 점차 구성적으로 복잡해지고 그 범위와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UN, 2012). 한국 사회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 안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최근 우리 사회 역시 전체 인구에서 결혼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여성가족위원회, 2012).

행정안전부 자료(2013)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외국인 주민은 전년 대비 36,054명 증가한 1,445,631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 비율인 10.3%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개발도상국의 비율인 1.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강관혜, 2010). 국내 외국인 주민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제결혼을 통해 생성된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1992년 당시 5,534건이었던 국제결혼 건수는 2010년에는 34,235건으로 약 7배가량 증가했다(행정안전부, 2013). 그리고 18세 미만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도 2007년 44,258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151,154명으로 5년 사이에 십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향후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유소년인구는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이들이 전체 가족

자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삼식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의 교과과정 학생 자녀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기 자녀들의 증가 추세는 주목해 볼 만하다. 현재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들 중에서 청소년기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중 유소년층(0세-14세)은 90.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9). 하지만 2011년과 2010년의 다문화가족 학생 자녀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5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37.6%), 초등학생(15%)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이와 같은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에서 청소년기 자녀가 차지하는 양적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다양성 또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흔히 한국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생성된 다문화가족을 결혼이주민, 한국인 배우자, 그들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결혼이주민과는 달리 국경을 넘는 이주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실제 다문화가족 자녀들 중 일부는 청소년기에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성장하다가 한국으로 중도 입국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조혜영, 2012). 국내에서도 최근 재혼을 한 국제결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결혼이주민이 본국에 남겨 둔 자녀들을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중도입국 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민자들의 동화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같은 연령대의 이민자 집단 내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하위그룹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Kao, 2009).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청소년들 또한 사실 국경을 넘는 이주를 경험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주 배경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신체, 심리, 사회적인 특징을 상이하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국내 연구자들도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중도입국 경험 여부에 따라 하위 그룹을 나누고, 그것이 다른 요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차 주목하고 있다.

우리 사회 내 다문화 구성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과 관련해서는 교육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박찬옥 외, 2011).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외모로 인한 차별이나 이주로 인한 정서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들은 사실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학교 성적이나 숙제 및 준비물 등 학업적 측면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민이 많고, 중도입국 여부에 따라 학업적 성취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실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응답자들이 38.5%로 가장 많았던 반면, 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힌다는 응답은 5.3% 정도였다(전경숙, 2008). 또한 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에 비해서 낮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 청소년들 안에서도 성적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분석결과 국내에서 태어나 성장한 청소년들보다 출생한 나라에서 성장하다가 중도입국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가 전반적으로 낮았다(김영란, 2013; 이정우, 2013; 조윤동 외, 2013).

이러한 현상은 결혼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체로 결혼 이주민은 법적 지위, 취업 상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와의 연령차가 크며, 한국어가 서툰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삼식 외, 2009), 또한 다문화가족은 평균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특성이 있다(김유경, 2009). 이러한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특성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계민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민 모의 한국어가 서툴거나 저학력이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다문화가족 학생은 대체로 한국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능력, 학교 성적, 자존감이나 성취동기와 같은 심리적 특성, 학교생활 적응 등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설동훈 외, 2005; 오성배, 2005). 또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성인이 되면 복잡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이고, 학교생활을 잘 마쳤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등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삼식 외, 2009).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건전하게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 지원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모상현, 201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시작된다. 그리고 같은 해 교육부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남성희·전종설, 2013). 우선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및 기초능력 향상 지원, 다문화교육 기반구축 및 연구·활동 강화,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 강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언어·학습·정서 발달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모상현, 2011). 이밖에도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같은 중앙정부 부처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그리고 민간단체 등에서도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각종 교육 지원 서비스가 활발

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실시된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연구는 주로 심리적 적응문제, 교육격차와 학력 차이문제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김홍주·박길태, 2010). 그 와중에 교육 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탐색적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연구들의 주된 내용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욕구, 생활 실태 및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 서비스의 내용과 한계, 향후 발전 방향을 서술적으로 논하고 있을 뿐이다(송기철, 2013; 서강식, 2013).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에 관하여 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들(이주재·김순규, 2010; 김안나·최승아, 2012; 김혜미, 2012; 서지은·최현미, 2012)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모두 결혼이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을 뿐, 아직까지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

사실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교육 지원 서비스 사용 패턴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교육 지원 서비스 욕구에 대한 개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함의나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시점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전국 대표 샘플인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를, Gelberg 등(2000)의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이용 행동모델(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이하 겔버그-앤더슨 모델)에 적용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자녀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겔버그-앤더슨 모델은 공공서비스의 이용요인 연구에 활용되는 Andersen, & Newman(1973)의 의료 서비스이용 행동모델

(Behavioral Model of Service Utilization, 이하 앤더슨 모델)을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행태를 예측하기 위해 재개정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의 3가지 영역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일반적인 계층의 사람들보다 낮은 신체·심리·사회적 건강의 위험에 처하기 쉬운 사람들로서, 이주민, 망명자, 아동 또는 청소년, 지체 또는 정신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을 포함한다. 다양한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이주민의 경우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양극화된 집단으로 나뉘기 쉽다. 그 중에서도 열악한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은 신체·심리·사회적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Aday, 1994).

그간 국내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깰버그-앤더슨 모델을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또한 이마저도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을 뿐(김혜미, 2012), 아직까지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적용한 연구는 없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결혼이주여성과 같이 이주민에 포함되고, 따라서 상기한 취약계층의 범주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깰버그-앤더슨 모델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보고,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해외에서 태어나 거주하다가 중도에 한국으로 입국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탐색적으로 분석했다. 본인의 이주 경험 여부는 신체·심리·사회적인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중도 입국 여부에 따라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들 또한 상이한 역동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중도입국 경험 여부에 따라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양상이 다르다면, 정책이나 개입의 방향성도 중도입국 여부와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중도입국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고, 구조방정식의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 요인과 중도입국 여부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 향후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 정책의 방향성을 각각 고찰하였다.

##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예측요인이 중도입국 여부에 따라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은 중도입국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제2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우선 본 연구에서 말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누구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교육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이용욕구, 실태를 차례대로 살펴볼 것이다. 이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을 위한 이론적 틀로서 깰버그-앤더슨 모델에 대해 소개하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예측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 제1절 다문화가족 청소년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sup>1)</sup>이란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가족을 말한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2011년 개정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을 반영한다. 여기서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와 출생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이혼·사별한 결혼이민자와 같은 2009년 실태조사 대상과 함께 결혼이민자, 귀화, 인지에 의한 한국인과 귀화, 인지에 의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1인 미혼 귀화 한국인, 결혼이민자 등과 이혼·사별한 출생 한국인과 같이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지원 및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거나 실태 파악이 필요한 집단 등을 말한다(여성가족부, 2013).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고 2013년 3월

---

1) ‘다문화가족’은 주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는 용어로, 그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다양하다(이정우, 2013). 최근에는 ‘다문화가족’을 국제결혼으로 생성된 가족,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가족 외에도 북한이탈주민가족,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국 가족, 외국 국적의 두 부부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가족을 모두 포함하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전경숙, 2008). 하지만 본 연구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당 자료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문화가족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3일에 개정 시행된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에서 24세 이하인 자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한 바를 따른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하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자녀 관련 조사가 만 9세-24세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청소년으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상기한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자녀로 한정하여 지칭한다.

한국 사회 내 다문화가족과 그 구성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13)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건수는 1990년 4,710건에 불과 하였으나 1995년 처음으로 만 여 건(13,494건)을 넘기 시작했다. 이 후 2005년 42,35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꾸준히 3만 건 이상(2010년, 34,235건)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결혼 대비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 1.3%에서 2005년 13.5%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 후 그 비율이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꾸준히 11% 이상 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자녀의 규모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자녀는 2007년 44,258명이었으나, 2011년 151,154명으로 불과 5년 사이에 십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 중 청소년기 자녀들의 증가 추세는 주목해 볼 만하다. 2011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학교 급별로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생의 증가율은 중학생이 50.3%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 37.6%, 초등학생 15% 순이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이삼식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도를 기준으로 국내 결혼이민가정 자녀의 비중은 보육교육기의 경우 2.7%, 초등학교 0.7%, 중학교 0.3%이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령기 자녀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2050년이 되면 보육교육기의 경우 24.7%, 초등학교 15.3%, 중학교 12.0%, 고등학교 10.1% 대학교 7.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09년도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유소년층(0-14세)의 비중은 90.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이삼식 외, 2009), 대다수의 유소년층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양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2000년대 초반 이후 증가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대다수가 생애주기 상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동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에 노출 될 것이다(김홍주·박길태, 2010).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요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들의 동화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같은 연령대의 이민자 집단 내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하위그룹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Kao, 2009).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재혼에 의한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이주민이 본국에 남겨 둔 자녀들을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중도입국 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학계 및 일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여성가족위원회, 2012).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 내 청소년 집단을 출생 및 성장한 곳이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연구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출생 및 성장한 곳이 이주를 한 국가인지 아니면 이주를 해온 국가인지는 이주민 가족 청소년의 이주 국 언어 습득 및 억양, 적응, 교육 및 직업적 성취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umbaut, 2004).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하나의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다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를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으로, 해외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후 재혼한 결혼이주민을 따라 국내로 들어온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를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산출되어 있지 않다(김명정, 2011; 이재분, 2011; 장명선·송연숙, 2012).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규모를 추측해 볼 수는 있다. 교육부(2012b)가 조사하여 발표한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은 4,288명으로 2011년 조사 당시 2,540명보다 68.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학교 급별로 나누어보면, 초등학생은 2,676명(62.4%)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986명(23%), 고등학생 626명(14.6%) 순이었다. 한편 전경숙·이의정(2012)은 2012년 1월 말 기준 출입국관리소에 귀화 신청한 19세 이하 부모 동반입국 청소년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은 5,828명으로, 2010년 3,468명에 비해 6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이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7-19세의 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이 3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세 이하의 초등학교 저학력 연령대 자녀가 34.8%로 뒤를 이었다. 이들 조사 이전에 입국하여 이미 귀화했거나 귀화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들이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실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양계민·조혜영, 2012). 현재 재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족에서 본국에 남겨둔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

---

2)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이 입국 당시 법적으로 분류된 명칭에 따라 이들을 지칭한 것이다(여성가족부, 2013). 정책용어로 급조된 ‘중도입국’이라는 용어는 학계나 현장에서 합의되어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용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책대상에게 이중의 낙인효과를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전경숙·이의정, 2012). 한편,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은 일정기간 외국에서 성장과정을 거치고 입국하는 청소년들로 결혼이주여성인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모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국가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를 말한다. 그 외에도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청소년, 근로 및 학업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 등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을 넓게 보는 시각도 있다(양계민·조혜영, 2011). 본 연구에서는 2012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므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로만 제한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3)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만 9세~24세 자녀)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17,902명으로 추산되었다(여성가족부, 2013).

려오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데(양계민·조혜영, 2012), 이를 생각해보면 향후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체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F-1(방문동거)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다. F-1 비자는 1년 이상의 체류만 허용될 뿐 권리는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취득 시 입국과 함께 교부받는 외국인 등록증의 취업란에 ‘무직’으로 기재되어, 취직 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추방될 수 있다. 이들은 국내 입국 이후 입양을 통해 한국인 부모의 자녀로 호적상 기재되고,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성상환·김명정, 2010). 대부분은 한국인 자녀로 입양하고 있었는데, 이는 교육 등 각종 혜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서문희 외, 2010).

서문희 등(2010)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 부모 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 이전에 혼인하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입국 후 보통 2-3년 이후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자녀는 주로 전화나 편지를 이용해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결혼 생활이 정착기에 접어들 무렵에야 남편과 합의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혼 후 바로 자녀를 데리고 오지 못한 이유는 이주민 당사자의 적응 문제 또는 남편과의 합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계민·조혜영(2011)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 403명을 대상으로 한 양적 조사 연구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자발적인 입국을 하였으나 한국에 오기 전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들은 한국의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입국했는데, 대다수가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후회 또는 판단을 보류한 대상자도 30%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명선·송연숙(2012)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대다수(61.5%)는 자신이 출생하고 성장한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과 혼합된 정체성을 가진 경우(19.2%)도 있었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경우(15.4%)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계민·조혜영(2012)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라 부모학대, 방임, 가족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제행동의 지각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학대 및 방임은 중학교 연령 집단이, 가족 지지는 초등학교 연령 집단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고, 20세 이상 집단은 그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낮았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경우 20세 이상 집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연령대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발적으로 입국한 집단은 가족지지 및 친구 지지를 높게 인식했고, 자아존중감은 높으며,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와 문제 행동 수준이 낮았다. 또한 입국한지 오래된 경우일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낮았으나 문제 행동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을 함께 의논할 사람이 있으면, 학대, 방임,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같은 부적응적인 변인의 수준은 낮아지고, 가족지지, 친구지지, 자아존중감 등 긍정적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비재학중인 청소년들은 재학중인 청소년들에 비해 가족지지, 친구지지를 낮게 인식했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섯째, 한국어 수준은 심리사회적응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 재학 집단은 가족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고, 문제 행동의 경우 입국년도, 친구지지, 어려운 일에 대한 의논상대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비재학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학대·방임이 여러 영

역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고, 친구지지, 가족갈등 및 한국어 말하기 수준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본국에서 결혼이주민이 결혼을 위해 떠난 이후 외조부모나 친척집에 함께 살게 되는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하여도 국적 취득 등의 이유로 1년 정도 혼자 집안에 남는 경우가 많았는데, 따라서 오랜 기간의 교육 공백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재분, 2011).

## 제2절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 지원 서비스

### 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필요성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가 다름에서 오는 소외나 놀림, 차별이나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공부나 숙제 및 준비물 등 학업적인 측면에서 오는 어려움들에 더 많이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숙(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38.5%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반가정 응답자의 28.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창준 등(2012)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학생 84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다문화가족이 아닌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성적에 대한 고민과 수업 이해의 어려움 외에도 친구문제와 같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성적과 미숙한 한국어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족이 아닌 청소년들에 비하여 사회, 수학, 영어, 국어 등 주요 교과목 학습과 학교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유창준 외, 2012). 김홍주·박길태(2010)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학업수준 차이를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족이 아닌 청소년들 보다 자신의 학업 수준, 학교생활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오성배(2005)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다른 과목에 비해 국어 과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기와 독후감 쓰기가 어렵고 문장이해력과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장 이해력이 높아지기는 하나, 다문화가족이 아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도 주요 과목의 학업 성적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이 다문화가족이 아닌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초등학교 6학년, 중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연구(김영란, 2013; 이정우, 2013; 조윤동 외, 2013)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 학생들은 전체 학교 급에서 다문화가족이 아닌 학생들에 비해 국어, 수학, 사회과목의 학업 성취도와 척도점수 평균이 낮았다.<sup>4)</sup>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이 아닌 자녀들에 비해 언어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특성은 정체성과 대인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설동훈 외, 2005; 오성배, 2005). 또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더욱 복잡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또는 차별 때문에 교육 과정을 제대로 마쳐도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며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이삼식

---

4) 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분석은 연구목적 및 각 과목별로 이 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국어 과목은 초등학교 6학년만을 대상으로 (김영란, 2013), 사회 과목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이정우, 2013), 수학 과목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조윤동·강은주·고호경, 2013) 각각 실시되었다.



외, 2009).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 또한 한국어 구사 능력, 주요 교과목 학습 및 학업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전경숙·이의정(2012)이 경기도 내 일반학교 학생과 공립 대안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유관 센터의 프로그램 참여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 413명을 대상으로 한 양적 조사 연구에 따르면, 학교 밖 센터와 대안학교 재학생, 중국(한족)출신의 경우 각각 64.5%, 60.5%, 68.6%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응답하여 입국초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학교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한 재학생의 5%정도가 학교 중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한국어를 잘 몰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상환·김명정(2010)에 따르면, 국내에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갈 수 있는 학교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언어적 측면이나 학업성적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일반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들의 입학에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입학해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들은 모국이나 한국에서 학교 진입 이전의 공백과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편입학이 어렵다. 특히 나이가 학급 동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학교 입학 시기에 갖추어야 될 서류 절차가 어렵고 학교생활에서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생활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은진, 2013). 학업을 당장 이어나갈 수 없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들은 대안학교를 비롯한 몇몇의 학교를 통해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정원이 제한된 탓에 대다수의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는 그들의 교육문제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적응 문제와 연관되고 있는 실정이다(성상환·김명정, 2010).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들은 대안학교에서조차

부적응 문제를 보인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들은 대개 본국에서 어머니가 결혼하기 위해 떠난 후, 외조부모와 함께 살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며, 또한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1년 정도 홀로 집안에 머무르게 되어 결국은 오랜 기간 교육공백을 경험한다. 이런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대안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하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만 하는 현실에 내적 분노를 보이기도 한다(이재분, 2011). 이와 같이 교육적 문제에서의 어려움은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대인관계형성 및 사회적응에 있어 방해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고립감과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심리적 취약 상태가 방황과 이탈 행동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유진이, 2013).

한편,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들과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교육적 측면에서의 성취 정도가 다르고, 서로가 겪는 어려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2013; 이정우, 2013; 조윤동 외, 2013). 우선, 성취도와 관련하여 우수학력<sup>5)</sup>의 비중이 국어 과목은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자녀들의 경우 28.16%인 반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15.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과목과 수학과목의 경우 우수학력의 비중은 국어과목과 비슷하나, 수학과목에서 고등학교 급에서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중 단 한 명의 학생도 우수학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교과에서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면, 국어과목에서 듣기 영역의 경우 주장에 대한 알맞은 근거 파악하기, 읽기 영역에서는 텍스트 내 명시적 정보 파악하기와 설명하는 방식 파악하기, 쓰기 영

5) 학업 성취도 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 학력 미달로 구분한다. 대략적으로 우수학력은 교육 내용의 80%이상, 보통학력은 50%이상, 기초학력은 20%이상을 성취하고 있는 학생으로 구분된다(김영란, 2013).

역에서는 맥락에 적합한 어휘로 고쳐 쓰기, 문법 영역에서는 문장 성분 중 목적어 파악하기, 문학 영역에서는 감각적 표현 파악하기 문항에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와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자녀가 정답률이 가장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2013).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세계 공용으로 사용되는 기호, 표현이 많아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와 연산, 도형, 확률과 통계 등의 영역별 평균 정답률이 초등학생의 경우 두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전 영역에서 점차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과목에서는 성취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들의 경우 우수 학력과 보통 학력의 비율이 56.57%로 나타났으나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반대로 기초학력과 학력미달의 경우가 78.29%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조운동 외, 2013). 또한 사회과목의 경우 세부 항목에서 다문화가족이 아닌 학생들과의 격차가 나타나는 부분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의 경우는 한국사 영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반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지리 영역 중 세계지리 영역, 역사 영역 중 한국사 영역, 일반 사회 영역 중 법 영역에서 다문화가족이 아닌 학생들과의 정답률 격차가 컸다(이정우, 2013).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족이 아닌 청소년들에 비해 주요 교과목에서의 취약성이 크므로 교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그 서비스의 내용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중도입국 여부를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된 어려움은 결혼이주민에게서 보이는 특징 때문에 발생한 것일 가능성 크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족을 형성하는 결혼이민자의 상당 비율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한국 내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처럼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가진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내 취업이 쉽지 않으며, 따라서 남편 및 시댁과의 가족관계에서 소극적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자녀 교육 지원을 힘들게 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저 연령층 여성으로 한국인 남편과의 연령차가 큰 특징을 갖는다. 이들 중 지나치게 큰 연령차를 가진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는 한국 생활 적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부적응은 우울증의 원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힘들게 하고, 나아가 자녀 교육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부부의 나이차가 큰 경우 고령의 한국인 남편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시점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빠르다. 이 역시도 자녀 교육 지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은 한국인 평균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여성 결혼이주자의 낮은 학력수준은 노동시장의 진입과정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이 자녀 교육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낮은 학력 수준이 자녀에게까지 세습화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여성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취업경험이 없고, 취업경험이 있어도 질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직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낮은 직업능력은 언어소통 곤란, 문화 차이, 자녀양육 부담 등의 문제와 결합하여 한국사회 내에서 노동시장 참여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또한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에서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이삼식 외, 2009). 실제로 설동훈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취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결혼이주민 어머니로부터 학습과 관련하여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주로 한국의 교과내용을 이해할 수 없거나, 바쁜 생업 때문에, 또는 낮은 한국어 수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영달(200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업부진 정도가 높았고, 학습결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특징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자체가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그들의 자녀 교육 지원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유경(2009)의 조사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다문화가족의 54.5%에 해당하는 가구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311.3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 비중의 다문화가족이 저소득층에 속한 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낮은 경제적 수준 때문에 다수의 다문화가족은 자녀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자녀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도움은 핵심적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와는 다른 환경에서 사회화 되어 스스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민의 현실과 다문화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결국 그들의 자녀 교육 지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서강식,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수는 향후 급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모상현, 2011). 청소년기는 생애주기 상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의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인성 함양 및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지원과 관련된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다문화 가족 자체가 우리 사회 가족의 기본 단위로 안전하게 정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서강식, 2013).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회 동화 내지 통합은,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을 중심으로 한 초기 이민정책의 성공에 있어 아주 큰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들이 성장과정에서 교육 또는 노동시장 참여 등의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지 못하고, 학교나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받고 배척된다면, 우리사회의 앞날은 매우 어두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인구의 양적 및 구조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결국, 국가와 사회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보육·유아교육, 학교교육 등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양

육 관련 정책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자질과 노동력의 질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아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건강성 유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방과 후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삼식 외, 2009).

## 2.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욕구

그간의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공적 영역의 교육 지원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았다. 김홍주·박길태(2010)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문화욕구, 지지욕구, 경제욕구 보다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창준 등(2012)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이 아닌 청소년들이 문화·취미활동에 대한 응답을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고 꼽은 반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학습지도를 선택했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 또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전경숙·이의정(2012)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학교 공부 및 성적문제를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하였으며, 한국어 교육과 주요과목에 대한 지도를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순서대로 답했다. 양계민·조혜영(2011)이 2010년 특별귀화를 신청한 21세 이하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321명과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의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 82명을 포함하여 총 403명을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각 종 지원기관에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 사례는 전체의 6%에 불과하였으나, 향후 이와 같은 지원기관에 대

해 알게 된다면 이용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78.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적 영역의 지원은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 교육 및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양계민 등(2012)이 초등학교 5학년 다문화가족 자녀 1,503명에게 지금까지 받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원이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59명(63.7%)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271명(26.2%)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내용을 다문화가족 어머니 50명에게 물어본 결과, 전체의 96.9%가 필요한 것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양계민 등(2012)이 초등학교 5학년 다문화가족 자녀를 둔 부모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의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경쟁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한국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들의 공부를 잘 봐주지 못하는 점에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주거나 학습지를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양계민·조혜영(2011)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상담 및 지원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각종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중 83.3%가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일단 도움을 받게 되면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실태와 특성**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교육 지원 서비스는 그 관계된 법과 부처, 제공 서비스의 종류가 광범위하다. 여기에서는 우선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의 교육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고,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실시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의 교육 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학교 안과 밖을 중심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우선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교육 지원 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초등교육법 및 시행령, 아동복지법 등이 있다. 각 법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적 인권조약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의 각종 권리를 협약 당사국이 지켜야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20일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이 협약에 맞추어 개정하여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에게도 교육에 대한 권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근거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2007년 7월 18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결혼 이주민 당사자에 대한 적응 교육과 그들의 자녀를 위한 보육, 교육, 의료 지원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법<sup>6)</sup>은 2008년 제정되어, 2009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등 결혼 이주민과 그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으로 아동 보호·교육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제10조와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도 동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제14조가 있다. 넷째, 2004년 2월

---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지칭하는 ‘다문화가족’은 결혼 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했다. 그러나 2011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범위가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되었다(여성가족위원회, 2012).



9일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1년 12월 말 전면 개정 되었는데, 이 개정안에는 ‘이주배경청소년’<sup>7)</sup>이라는 용어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족 청소년,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 다양한 이주경험이나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섯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기본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 지원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여성가족위원회, 2012).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차원의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의 교육 지원 정책 및 서비스는 상기한 법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큰 틀에서 공교육체계 안과 밖에서의 교육 정책 및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강성중, 2013). 우선 공교육체계 안에서는 2006년 5월 수립·발표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과 2012년 3월 수립·발표된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교육부의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의 교육 정책 및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공교육체계 밖에서는 2008년 11월 수립·발표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과 2012년 12월 발표된 ‘제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관계부처와 민간전달체계에서의 교육 정책 및 서비스가 있다. 이 두 가

---

7)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밖의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으로 이주의 경험어 있는 모든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자신 혹은 부모세대가 다른 사회에서 한국사회로 이주를 경험한 청소년을 일컫는다. 기존 다문화가족청소년이 국제결혼에 의한 가족의 청소년만을 국한하는 의미인 것에 비해, 이주배경 청소년에는 북한이탈청소년,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이주노동자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여성가족위원회, 2012).

지 큰 틀의 내용을 각각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공교육체계 안에서의 교육 정책 및 서비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은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 구성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인권 보호 및 사회통합 강화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 본 대책에서는 국제결혼가족과 외국인 노동자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교육소의 방지 대책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립·발표되었다. 본 대책은 문화 민주적 통합(Cultural Democratic Integration)으로, 우리 사회를 문화적 용해의 장(Cultural Melting Pot)으로 전환할 것을 정책 비전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대책의 주요 과제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체제 구축,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지원 협력체제 구축 지원, ‘학교’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기능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확대,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학습 지원 및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신분안정을 위한 부처 협의 추진 등이 있다(교육부, 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은 2006년 수립·발표이후 매해 전년도 성과를 검토·보완하며 개선되었다. 각 연도별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에 따라 처음으로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계획은 전국 시·도에 공통되는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지속 점검·관리하고, 각 시·도별 특성에 맞는 특수사업을 공모형식을 통해 선정·지원하며, 연구·개발을 위한 중앙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것을 주요 사업 내

용으로 한다. 본 계획을 통해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개발, 시·도 다문화교육 센터 지원, 멘토링과 다문화이해 체험활동 등의 학생지원, 교사 연수 및 장학자료 발간·보급 등의 교사 지원, 학부모 연수 및 한글교실 운영 등의 학부모 지원, 학교 내 한국어(KSL)반 운영 등의 교육 지원이 이뤄졌다(교육부, 2007).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은 기관 간 연계 강화 및 학생 맞춤형 교육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다문화교육 지원 기관 간 연계추진,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제도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하여 한국어 교재, 교사용 참고자료, 교사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체험활동 및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멘토링 등의 시·도 맞춤형 다문화교육 사업 지원, 다문화 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교육 지원이 이뤄졌다(교육부, 2008).

2009년에는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다문화가정의 강점 발굴 지원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아·태 이해교육원을 통해 다문화 이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험 운영하였다. 또한 각 교육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을 지원하여 예비교사 등의 다문화 이해를 위한 지원, 교육대학교 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활동 참여를 연계하고 지원했다. 또한 역량 있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교육하여 이중언어 강사 등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주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 학습 등의 교육 지원이 이뤄졌다(교육부, 2009).

2010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와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기반 강화 및 다문화 이해 확산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학습단계별·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유아, 동반·중도입국 자녀 등 취약 분야 교육 지원 확대 등의 추진

과제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학부모 대상 문해교육 강사요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학교 내 특별 학급 운영 지원 등의 교육 지원이 이뤄졌다(교육부, 2010).

2011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특성별 맞춤형 교육 지원, 단위학교 및 지역 중심 다문화 체험 기회 확대, 지역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추진 전략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결연제 멘토링 운영, 오색다문화공동체 학교 운영, 정체성 향상 프로그램, 한국어 기초 학습 향상 지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일반 학생 대상의 다문화 교육과정 및 다문화 체험 운영 등의 교육 지원을 실시하였다(교육부 2011).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은 다문화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정책방향 수립 요구와 다문화학생의 교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및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전 사회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2012년 3월 수립·발표 되었다. 본 방안은 기존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과 같이 다문화가정 생성 배경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로 나누어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국제결혼 자녀를 다시 출생지에 따라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로 구분하여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본 방안에서는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다문화학생 교육 내실화 및 재능 발현 지원, 다문화 친화적 교육체제 구축이라는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다. 세부 과제로는 이에 따라 한국어 및 기초학력 책임지도, 한국 문화 및 학교 적응 지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진로·진학지도 강화, 글로벌 선도학교 확대, 예비교원 및 현

직 교원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 일반학생 상호이해교육 강화 등이 있다(교육부, 2012a).

## 2)공교육체계 밖에서의 교육 정책 및 서비스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은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2008년 11월 수립·발표되었다. 본 대책은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사회라는 비전 아래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유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이라는 4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가족전체 대상 포괄적 정책추진,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주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표 2-1>은 각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으로서, 자녀교육기에는 다문화아동·청소년 학습 발달 및 역량 개발 강화라는 정책과제 아래, 아동 언어·학습·정서 발달 지원,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빈곤·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라는 세부 추진과제를 수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보육시설 중심으로 다문화 영·유아 언어 발달 지원, 지역아동 센터 등을 방과 후 다문화 특화시설로 활용, 청소년수련 시설 확대를 통해 다문화 아동 방과 후 활동 역량 개발 활성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다문화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별 교육 강사 양성,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국제교류 해당국가 방문대상에 우선 선발, 아동·청소년 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국립청소년 수련원을 활용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강화활동 체험 지원 강화 등의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보건복지부, 2008).

<표 2-1>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생애 주기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결혼 준비기	결혼중개 탈법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국제결혼 탈법 방지 및 결혼당사자 인권보호 결혼이민예정자 사전정보 제공 한국인 예비배우자 사전교육
가족 형성기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지원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생활보장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위기 예방
자녀 양육기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 지원	임신·출산 지원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 배양 영유아 보육·교육 강화 부모·자녀 건강관리
자녀 교육기	다문화아동·청소년 학습 발달 및 역량 개발 강화	아동 언어·학습·정서 발달 지원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빈곤·위기아동·청소년 지원 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가족 역량 강화기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사회연계 강화
가족 해체시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요보호 아동 지원
전(全)단 계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추진체계 정비 대국민 다문화 인식 제고

보건복지부(2008)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적계획이다. 본 계획은 2012년 완료된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완료에 따라 1차 기본계획의 연속성을 담보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수요 및 여건 변화에 맞추어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본 계획은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한국인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결혼이민자의 문화 등에 대한 이해제고가 미흡하고, 결혼이민자 가정의 취약자녀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의 부족, 가족해체 등에 대한 예방정책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관심 소홀,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 지원 요구에 대한 대응부족 등의 필요성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본 계획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아래의 <표 2-2>과 같이 총 86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표 2-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

정책과제 (86)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7)	1-1.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1-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지지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5)	2-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2. 한국어능력 향상 2-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2-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2-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16)	3-1.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3-2.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3-3. 소외계층 지원 강화 3-4. 피해자 보호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16)	4-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4-2. 직업교육훈련 지원 4-3.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4-4.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21)	5-1.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5-2.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5-3.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5.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정책추진체계 정비(11)	6-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6-2.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6-3.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중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부분이다. 이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특별한 서비스보다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국어 능력 향상, 학교 정보 제공, 입학 전 적응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해서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건강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 그림, 도표를 이용하거나 번역하여 문해력 향상 방안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발달, 의사소통 능력 등 언어교육을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이중언어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등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유하고, 다문화배경을 가진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을 위해서는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진학 또는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인 ‘Rainbow School’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학교(150개교)를 운영하고 기초학습·상담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언어, 수학, 과학, 예체능 등 영역별 우수 학생을 육성(300명)하고, 고교직업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및 요리, 미용 등 직업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국제교류 등의 일정 비율을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가 포함 될 수 있도록 재구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상기한 각각의

과제와 서비스 제공은 부처별로 나누어 담당하게 하였는데 그것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과제 및 책임부처

과제명	세부과제명	부처명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지원	건강정보 문해력 향상	보건복지부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확대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이중언어 교육의 단계적 확대	여성가족부/교육부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한국어 능력 향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공유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초등학교 입학전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예비학교 전국 운영	교육부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여성가족부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교육부
	진로·진학지도 강화	교육부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입학절차 안내 및 학교 진입 유도	교육부/법무부
	각종 위원회 등에 다문화가족 청소년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여성가족부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복지 포함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2012), 강성중(2013) 재구성

민간전달체계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복지 법인, 기업, 종교단체 등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중앙정부 부터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고 단위별 지자체에서 센터를 선정하는 경우, 한국어나 이중언어지원 등 사업을 단위로 하여 민간기구나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나 종교 또는 개별 사업체중심의 재단에서 오는 민간 재원을 가지고 민간단체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김선희, 2010). 본 연구에서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그중에서도 펄벅재단 한국지부, 안산 위스타트 사업, 코시안의 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를 중심으로 일부 민간전달체계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펄벅재단 한국지부에서는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위해 일대일 학습지원과 학년 및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모에게는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 교육 지원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산 위스타트 사업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현 상태를 분석하여 각각의 사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시안의 집은 초기에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코시안 스쿨을 방과 후 학교로 개설하여 한국어 교육, 학습지도, 문화 체험 등의 특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화정체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동체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이창호·최승희, 2008).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는 주로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 생활 및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하지만, 최근에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편입학 준비를 돕기 위한 ‘반올림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각종 상담 및 의료지원, 비 다

문화가족 청소년들과의 교류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장명선·송연숙, 2012).

### 제3절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에 대한 이론적 틀

앤더슨 모델은 오랜 기간 동안 건강 서비스 및 일반 사회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어 온 모델이다(Lemming, & Calsyn, 2004). 처음 이 모델은 의사, 병원, 치과 서비스와 같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적용되었다(Bass, & Noelker, 1987).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면서 새로운 요인들이 추가되었고, 점차 복잡한 형태의 모델로 발전했다(Wilkinson-Lee, 2008). 그간 앤더슨 모델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활발히 활용된 이유는, 이 모델이 개인 체계 및 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을 살펴보는 통합 모델이기 때문이다(강상경, 2010). 최근에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 서비스나 정신건강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모델로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고(박경숙, 2003; 송다영, 2003; 이인정, 2004; 강유진·강효진, 2005; 김남희, 2008), 복지 서비스 인지도 연구에서도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Calsyn, & Winter, 1999, 강유진·강효진, 2005).

앤더슨 모델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실제 서비스 이용을 하는 ‘행동’으로 보고, 이러한 의료서비스 이용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예측요인을 살펴본다. 서비스 이용패턴은 크게 기술 수준, 보험 환경과 같은 사회구조적 차원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연관된 개인적 차원으로 이해된다. 다만, 서비스 이용여부, 지속성, 빈도 등과 같은 이용행위는 개인적 차원의 설명력을 강조한다(Andersen,

& Newman, 1973; Andersen, 1995). Andersen, & Newman(1973)에 따르면, 개인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이용은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요인(enabling factors), 욕구요인(need factors)의 세 가지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기한 세 가지 요인에 포함되는 세부 요소들은, 분석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유형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포함될 수 있다 (Bass, & Noelker, 1987; Bass, & Looman, 1992; Mitchell, & Krout, 1998).

그간 앤더슨 모델은 처음 개발된 1960년대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모델에 대한 비판과 의료 서비스 분야 자체의 발전상을 반영하고자 수차례 개정되어 왔다(Andersen, 1995). 특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앤더슨 모델이 취약계층들의 삶과 경험을 반영한 보다 본질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Scott Jr 외, 2013),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확대, 재개정된 모델이 바로 본 연구에서 활용할 겔버그-앤더슨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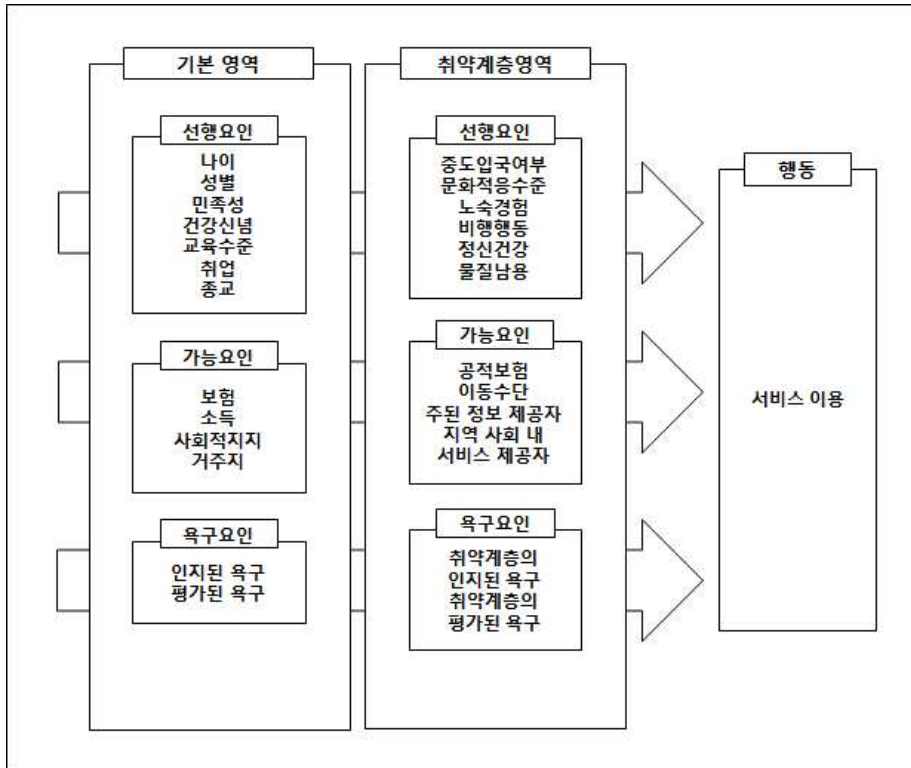
## 1. 겔버그-앤더슨 모델

겔버그-앤더슨 모델은 기존의 앤더슨 모델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서비스 이용 및 건강 결과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을 포함한 모델로(Gelberg 외, 2000),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행동모델(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이라고도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적 가치에서 비롯되었다. 즉, 낮은 신체·심리·사회적 건강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키는데 실패한 공동체에 묻는다는 것이다(Aday, 1994). 여기서 취약 계층이란 신체·심리·사회적 건강의 위협에 처해있는 사람들로서, 소수인종, 이주민, 망명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대상자, 만성병환자, 장애인, 노

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을 지칭한다. 이중에서도 이주민들은 연령이나 성별, 학력, 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서 국제적 이주를 통해 다양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은 신체·심리·사회적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Aday, 1994).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응하는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연구들을 통해서 어떠한 요인들이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지, 때로는 방해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겔버그-앤더슨 모델에서는 사회 일부 계층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그들의 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앤더슨 모델과 같이 서비스 이용과 같은 개인의 행위를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요인(enabling factors), 욕구요인(need factors)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데, 모델을 어떤 취약계층에 적용하는지에 따라 상기된 세 가지 구성요소는 적절히 수정되어 사용된다(Gelberg 외, 2000). 아래의 [그림 2-1]과 같이 겔버그-앤더슨 모델은 기존 앤더슨 모델의 전통적인 영역과 취약계층과 관련된 영역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후자의 취약계층을 위한 영역은 연구하고자 하는 취약계층 대상자들의 주요한 특성에 맞게 기존 앤더슨 모델에 더해진다(Gelberg 외, 2000).

[그림 2-1] 겔버그-앤더슨 모델



Gelberg 외(2000), 김혜미(2012) 재구성

먼저, 겔버그-앤더슨 모델에서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은 서비스 이용 이전부터 한 개인에게 존재하는 개별적 특성이다. 선행요인은 사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개별적 특성에 따라 서비스 이용 경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선행요인에는 나이,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이나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가족의 소득수준 등 사회구조적 특성, 태도 믿음과 가치가 반영된 건강 신념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Andersen, 1973). 그리고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문화적 적응(acculturation), 이주 지위, 출생지(place of birth)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특성과 학대이력, 병력의 유전적 요인 등과 같은 유년기 특성, 주거지 특성, 생



활조건, 범죄 및 약물 남용 경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Gelberg 외, 2000).

다음으로 가능요인(enabling factors)은 한 개인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자원을 의미한다. 가능요인에는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보험의 보장성 정도 등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물론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과 접근성 등을 포함한다(Andersen, 1973). 가능요인은 분석하는 서비스 종류나 대상자의 따라 포함되는 요인이나 영향력이 바뀌기 쉽고, 공공정책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rrayo 외, 2002).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가능요인에는 국가의 공적 지원, 필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자 등과 같은 개인·가족적 자원과 범죄율이나 사회적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같은 공동체적 자원이 포함된다(Gelberg 외, 2000).

욕구요인(need factors)은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개인의 특성 또는 질병의 수준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욕구요인에는 기본적으로 인지된 욕구(perceived need)와 평가된 욕구(evaluated need) 개념이 포함되는데, 인지된 욕구는 자신의 일반적인 건강과 기능 상태에 대한 개인이나 가족이 인지한 건강상태나 질병을 말하며 평가된 욕구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의 진단과 판단으로 측정된 욕구를 말한다(Andersen, 1973). 욕구요인은 가능요인에 비해 사용되는 요소가 덜 변하고, 기존 앤더슨 모델의 세 가지 요인 가운데서도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큰 설명력을 갖는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orrayo 외, 2002).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욕구 요인에는 해당 취약계층에게 특정하여 관련된 인지된 욕구와 평가된 욕구가 포함된다(Gelberg 외, 2000).

## 2.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 이용 예측에 관한 연구

해외의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앤더슨 모델을 활용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우선 앤더슨 모델을 활용한 연구에는 Rew 등(1999), Sarmiento 등(2004), Sarmiento 등(2005)의 연구가 있다. Rew 등(1999)은 미국 코네티컷 주에 거주하는 7, 9, 11학년 히스패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케어(routine care), 신체검사 서비스 이용 예측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Sarmiento 등(2004)의 연구는 학교에 다니는 미국 라티노 청소년들(멕시코계, 쿠바계, 중앙/남아메리카/도미니카 공화국계)들의 일상적 신체검사(routine physical examination) 이용의 예측요인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 연구는 미국 라티노 청소년들을 세대 별로 구분하여 접근한 연구로서, 서비스 이용의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Sarmiento 등(2005)은 2004년의 연구에 이어 같은 대상자들을 연구하였고, 이때에는 일상적인 케어(routine care) 이용의 예측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앤더슨 모델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분석한 Huang 등(2006), Bridges 등(2010)의 연구가 있다. Huang 등(2006)은 0-17세의 이민자 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유무, 치과 이용 여부, 의사나 정신보건 전문의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이 연구는 이주민들의 시민권 취득 여부, 출생지 등의 독립변수들의 서비스 이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Bridges 등(2010)의 연구는 라티노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과

---

8)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건강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예측에 관한 해외의 연구들은 대부분 출생지와 세대를 아울러 다양하게 구성된 대상자들을 분석에 포함시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본 연구에서처럼 결혼이주민과 본국에서 출생한 자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예측 요인을 분석한 해외 연구는 드물다. 비록 국내 다문화가족 청소년 집단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처럼 이주를 직접 경험한 집단이 있지만 해외의 연구를 국내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적 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에 관해서 분석했다. 이 연구 또한 출생지가 이주한 국가인지 아닌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규명한 국내연구는 아직 없다. 다만, 다문화가족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이론에 바탕을 두고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이용을 경험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문헌들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문헌이 없는 국내문헌의 한계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까지 실시된 결혼이주민 대상의 연구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앤더슨 모델을 활용하여 결혼이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분석한 연구로는 이주재·김순규(2010), 김안나·최승아(2012), 서지은·최현미(2012)등의 연구가 있었고,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이론적 틀인 깰버그-앤더슨의 모델을 적용해 분석한 것으로는 김혜미(2012)의 연구가 있다.

이주재·김순규(2010)의 연구는 전라남도 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 208명을 대상으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조사 내용에 포함된 11개의 사회복지 서비스<sup>9)</sup> 유형에 결혼이주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부 관계 및 가족 관계 이해 교육, 한국어 및 문화 적응 교육, 기타서비스 등 3가지 복지서비스 유형을 추가하여, 이의 예측요인에 관해 분석했다. 이 연구는 특정 지역 거주 결혼이주 여성만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결혼이주 여성에 대해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김안나·최승아(2012)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

9)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에 포함된 11개 복지 서비스 유형은 ①생계비(생계보조수단) 지원, ②의료비 지원, ③물품(식료품, 의류, 가구 등) 지원, ④가정봉사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⑤식사(밀반찬) 배달서비스, ⑥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⑦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 ⑧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관련), ⑨약물(알코올)상담, ⑩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⑪아동을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7).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적응관련 서비스,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 직업훈련 서비스 등 4개 유형의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규모 단위의 대규모 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결혼이주 여성에 대해 일반화하여 해석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서지은·최현미(2012)는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상황이 이들의 문화적응과 가족의 탄력성 강화를 지원하는 가족상담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 활용하여 가족상담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에 대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동일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김안나·최승아(2012)의 연구와 비슷하나,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인 가족상담 서비스에 집중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대상자 중심의 연구라고 생각한다. 김혜미(2012)의 연구는 결혼이주민의 적응지원서비스, 가족서비스 이용 예측요인과 성별, 출신국가에 따라 이 예측요인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두 연구와 같이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처음으로 남성결혼이주민을 분석대상에 포함했고, 본 연구와 같이 다중집단분석을 활용하여 성별, 출신국가에 따라 예측 요인 간의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했다. 또한 기존 앤더슨 모델의 최근 개정판인 깰버그-앤더슨 모델을 활용하여 처음으로 결혼이주여성 관련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에 대해 분석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 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

여기에서는 상기한 깰버그-앤더슨 모델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 1) 선행요인과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앤더슨 모델의 선행 요인은 나이, 성별, 인종, 지역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개인의 사회 인구학적, 태도적 특성을 포함한다(이주재·김순규, 2010).

구체적으로 나이와 관련하여 Sarmiento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11-15세에 해당하는 쿠바계 청소년들이 16-21세의 쿠바계 청소년들에 비해서 일상 건강 검진(routine physical examination)을 덜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에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수준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김안나·최승아, 2012), 또한 나이에 따른 서비스 이용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주재·김순규, 2010; 김혜미, 2012).

성별과 관련하여, Marcell 등(2002)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포괄적 건강서비스를 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결혼이주민 대상의 연구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김혜미(2012)의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이 결혼 이주 남성 에 비해 적응지원서비스, 가족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교육수준도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고려되는데, 결혼 이주여성 관련 연구에서는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안나·최승아, 2012). 하지만 나이와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주재·김순규, 2010; 김혜미, 2012, 서지은·최현미, 2012).

그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출생지와 중도입국 여부를 알 수 있는 세대 간 구분 변수를 선행요인으로 포함시켜 왔다(Sarmiento 외, 2004; Sarmiento 외 2005; Huang 외 2006; Bridges 외 2010).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출생지와 세대 구분 변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서비스 이용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rmiento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온 쿠바계, 중앙 및 남부 아메리카계, 푸에르토리코계 청소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일상 건강 검진을 덜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rmiento 등(2005)이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미국에 이주한지 5년 미만 된 멕시코계 청소년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멕시코계 이민자 가정의 2,3세대(Second, Third generation) 청소년들에 비해서 일상적치료(Routine care)를 덜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idges 등(2010)의 연구에서도 미국에서 출생한 라틴-아메리카계 청소년들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나 이주한 라틴-아메리카계 청소년들에 비해서 가정의, 일반의 또는 기타 보건전문가들을 찾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uang 등(2006)의 연구에서는 시민권이 없는 미국 외 출생 자녀들이 시민권이 없는 미국 출생 자녀들보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정리하면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나이, 성별, 교육수준, 중도입국 여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나이, 성별, 교육수준, 중도입국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선행요인으로서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속한 가족의 역동이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개개

인 보다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체가 가진 선행요인들이 교육 지원 서비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선행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인과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과의 역동보다는 가족적 맥락의 변수가 가능요인으로서 작용하는 역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 요인에서는 결혼이주민과 그 배우자의 직업, 학력, 가족원 수 등 가족 내 구성원들과 관련된 선행요인들을 빼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가능요인과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가능요인은 서비스 이용을 자극하거나 금지하는 조건을 의미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식, 소득, 건강보험,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포함한다(이주재·김순규, 2010).

우선,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은 그 결과가 혼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주·박길태(2010)가 전북 익산지역의 다문화가족 청소년 89명과 일반청소년 127명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수준이 두 집단의 청소년 모두의 지역사회시설 이용률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Sarmiento 등(2004)의 연구에서는 멕시코계, 중앙 및 남부 아메리카계, 푸에르토리코계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가구의 소득이 가구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threshold)보다 높은 경우 일상 건강 검진을 더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ang 등(2006)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치과,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 의사 방문을 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의 경우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더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이주재·김순규(2010)의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적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김안나·최승아(2012)의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소득이 높을수록 한국적응관련 서비스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안나·최승아(2012)의 연구에서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 이용은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김혜미(2012)의 연구에서도 가구소득에 따라서 적응지원서비스, 가족서비스 이용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거주 지역에 대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들도 있는데, 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이주채·김순규, 2010, 서지은·최현미, 2012), 농촌지역에 거주할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연구도 있다(김혜미, 2012). 이외에도 김안나·최승아(2012)의 연구에서는 거주환경이 양호할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족관련 요소들을 모델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이 기존 앤더슨 모델을 활용한 일부 연구들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지만(Bass, & Noelker, 1992), 사회적 지지망 역시도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w 등(199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나 친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감 정도는 신체 검사 서비스 이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성배(2005)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휘력이 부족한 결혼이주민의 경우,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한국말을 잘하는 배우자가 와서 챙겨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결혼이주민의 배우자와의 관계 형성이 좋지 못한 경우 각종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강복정(2012)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 통합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들이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모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과의 관계와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결혼이주민에 대한 이주재·김순규(2010)연구에서는 부부관계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망의 연계가 높을수록 기초 생활 및 상담지원 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서지은·최현미(2012)의 연구에서도 시댁과의 관계가 나쁠수록 가족상담 서비스 이용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신 모국인 또는 기타 외국인의 지지망과 관련해서는 결혼이주민이 이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안나·최승아, 2012; 김혜미, 2012; 서지은·최현미, 2012).

한편, 취약계층 관련 가능요인으로서, 김혜미(2012)는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혜택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들이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수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rmiento등(2004)의 연구에서도 멕시코계, 쿠바계, 중앙 및 남부 아메리카계, 푸에르토리코계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사적 또는 공적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일상 건강 검진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리하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 가능요인으로 가구의 경제적 수준, 거주지역, 사회적 지지망, 사회보장제도 수급 유무 등이 지적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가능요인으로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 가구의 총소득, 거주지역, 사회적 지지망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의 부모 관계만족도, 사회보장제도 혜택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유무를 살펴보려고 한다.

### 3) 욕구요인과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욕구요인은 서비스를 찾게 되는 질병이나 손상의 특성으로 선행요인과 가능요인이 적정한 수준에 있을 때 서비스 이용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게 된다(이주재·김순규, 2010). 김혜미(2012)의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관련 영역으로 결혼이주민의 한국어 능력을 욕구요인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고, 그 결과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적응지원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armiento 등(2004)의 연구에서는 언어적 능력을 선행요인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는데, 멕시코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에서 영어보다 스페인어 및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일상 건강 검진을 덜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앤더슨 모델을 활용한 결혼이주민 연구에서는 욕구요인으로 포함된 요소들이 서비스 이용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주재·김순규(2010)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수준이 높아질수록 상담지원서비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주재·김순규, 2010), 김안나·최승아(2012)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서비스 이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 가족은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언어적 배경을 지닌 가족 구성원이 공존하는 이중언어적 환경을 전제로 함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이중언어화자라고 볼 수 있다(오은순, 2010).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경우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이들은 한국인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어머니 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우고자 한다(이창호·최승희, 2008). 이런 경우 이주 부모의 모국어를 배우고 싶은 욕구와 서비스 이용이 높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욕구요인은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체적으로 욕구가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관련 요인으로 우울,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등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욕구 요인으로, 이중언어 유능 욕구, 한국어 취약성 정도,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본인의 인지된 욕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 4) 예측요인과 교육 지원서비스 이용의 집단 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민자 집단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하위 그룹으로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하다(Kao, 2009). Rumbaut(2004)의 연구에 따르면 출생지(nativity)와 이주국에 도착했을 당시의 나이(age at arrival), 부모의 출생지(parental nativity)에 따라 이주민들의 세대 간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출생지가 이주국 외 국가인지, 아니면 이주국인지에 따라서 1세대와 2세대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1세대에서는 다시 이주 당시의 나이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후기·중기·초기 성인기, 성인 전환기, 청소년기(1.25세대), 중간아동기(1.5세대), 아동초기(1.75세대)의 하위 7그룹이 있다. 계속해서 2세대에서는 부모의 출생지에 따라서 하위 2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모 모두 이주국외 출생인 경우(2.0세대), 부모 둘 중 한 명이 이주국 출생이고 한 명은 이주국외 출생인 경우(2.5세대)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은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태어난 국가에서 유년기를 보내다가 부나 모가 한국인과 재혼하여 새롭게 가정을 꾸려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들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주 청소년(immigrant youth)이라고 볼 수 있다(양계민·조혜영, 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비록 재혼한 한국인 배우자의 영향과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기는 하겠지만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Rumbaut(2004)의 연구에서와 같이 1세대 이주민 청소년들의 특성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다

른 성장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존재는, 같은 다문화가족 청소년 안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체, 심리, 사회적인 특징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영자(2012)는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교육적 처방은 그들이 가진 심층문화의 유사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피부색과 외양 등 표면에 드러나는 모습의 차이보다 우리 경험을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숨겨진 가정, 의미, 가치, 규준 등 문화적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인 심층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태어나고 자라온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의 차이는 심층문화의 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은 교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또한 다양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중도입국 여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히 이 변수들이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만약 중도입국 여부에 따라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 전략이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도입국 여부에 따른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하므로, 효과적인 정책과 개입 방향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과 중도입국 여부 변수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예측 요인들이 중도입국여부에 따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계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앤더슨 모델의 최신 개정 모델인 갤버그-앤더슨 모델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였다.

앤더슨 모델에서 설명변수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변수를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개념적으로만 변수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 역시 선행연구 및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결혼 이주 여성의 건강,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있고,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원자료에서 사용 가능한 척도들로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설정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 중 선행요인에는 나이, 성별, 중도입국여부, 교육수준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가능요인에는 가구소득, 거주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유무, 부관계 만족도, 모관계 만족도가 포함된다. 그리고 욕구요인에는 한국어취약성, 이중언어유능욕구, 본인이 인지한 교육 지원서비스 이용욕구를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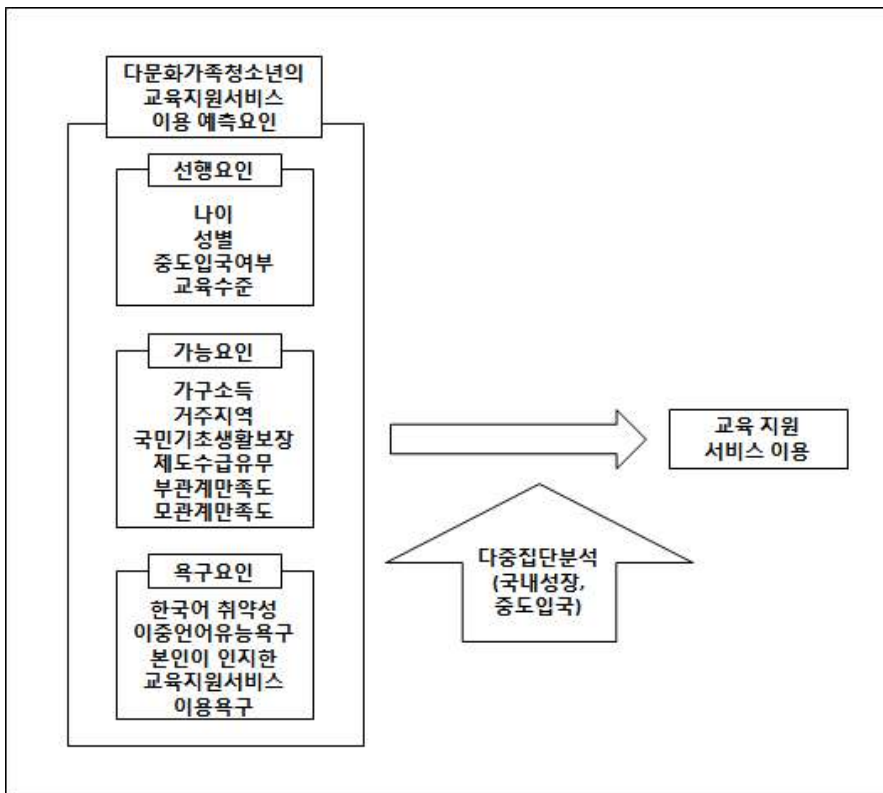
종속변수와 관련하여, Andersen(1995)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측정척도로써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 장소, 서비스 목적, 서비스 이용 주기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 연구자들은 서비스 대상의 특성과 연구목적에 따라 종속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

다(김남희, 2008).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내에서 5가지 교육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은 문항을 종속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 분석 모형에 포함된 선행요인 중 중도입국 여부 변수를 다중집단분석을 위한 구분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들이 중도입국 여부에 따라 구분한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상기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최종 분석모형



## 제2절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국가승인 통계 제11779호)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국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9년 처음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이은 제2차 실태조사이다. 2009년 실태 조사는 결혼이민자 전수조사를 목표로 실시되었으나, 2010년 통계청 수시통계품질진단 결과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절차 등 조사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2012년 실태조사는 성별, 지역, 출신국적을 반영한 체계적 표본조사로의 전환을 포함하여 조사표 작성 등 실태조사 전반에 대한 개선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시되었다.

우선, 2012년 실태조사는 2011년 4월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새롭게 정책 대상에 포함된 결혼이민자, 귀화, 인지에 의한 한국인과 귀화, 인지에 의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1인 미혼 귀화 한국인, 결혼이민자 등과 사별한 출생한국인과 같이 법적 대상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지원 및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거나 실태 파악이 필요한 집단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귀화자, 한국인 남편 등 배우자, 만 9세-24세 자녀 조사표 등 총 4종의 조사표를 별도로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최종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의 다문화가족 15,341가구의 결혼이민자·귀화자 총 15,001명, 배우자 총 13,859명, 만 9-24세 청소년자녀 총 4,775명이다.

본 연구의 조사 항목은 근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조사 항목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관련 부처 협의 사항, 정책 현안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발된 특별조사항목 등을 반영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가구구성표의 경우 가구 구성원, 자녀 보살핌, 중도

입국 자녀, 주택의 종류 및 점유 형태, 월평균 소득, 정부지원제도 등 10개 항목이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귀화자에 대해서는 혼인상태,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국적취득, 언어사용, 가족관계 만족도, 경제활동 등 112개 항목, 배우자의 경우는 혼인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경제활동, 배우자 국가언어 사용 등 53개 항목, 만 9세-24세 청소년 자녀의 경우는 가족관계, 학교생활, 사회생활, 진로 및 교육 지원, 외국 성장 자녀, 경제활동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7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실제 조사는 2012년 7월 10일에서 7월 31일까지 22일 간의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 각각의 대상자에 대한 자료는 조사 기간 동안 통계청 전문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전국 850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직접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가구별로 1시간-1시간 30분 가량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여 수집되었다. 조사표의 개발 및 결과분석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진이 조사원 교육 및 실사에 동행하여 2012년 실태조사 추진 과정에 기여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본 연구의 주 대상자는 총 조사 대상자 중 만 9세-24세 청소년자녀 조사에 포함된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 4,775명이다. 실제 분석은 만 9세-24세 청소년자녀 조사의 가족관계, 언어사용, 진로 및 교육 지원, 중도입국 자녀 부분과 가구 구성표의 가구 특성 부분을 활용하였다. 또한 출생지가 해외인지 국내인지에 따라 교육 지원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총 4,775명의 대상자를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815명과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 3,960명으로 나누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 제3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교육 지원 서비스의 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만 9세-24세 청소년 자녀 대상 조사에 포함된 5가지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을 활용하였다. 5가지 교육 지원 서비스에는 ① 한국어 교육, ②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언어 교육, ③ 한국사회 적응 교육, ④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문화 이해 교육, ⑤ 학습 지원 이용이 있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각 서비스에 대해 이용한 적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5가지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여부(예=1, 아니오=0)를 총 합산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변수의 최저점은 0점, 최고점은 5점이다.

###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들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변수를 구성했다.

#### 1) 선행요인

본 연구에 포함될 선행요인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된 변수들인 나이, 성별, 중도입국 여부, 교육수준이 포

함된다. 나이는 만 나이로 조사가 되어 있고, 이를 분석에서도 그대로 활용했다.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부호화한 가변수로 사용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출생지와 관련해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당신은 지금까지 주로 어느 나라에서 살았습니까?’ 라고 묻고 한국에서 계속 살았다 1,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다 2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도입국 여부’라는 변수로 명명하고,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인 경우 0,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인 경우 1로 부호화한 가변수를 만들어 분석에 사용했다. 교육수준은 졸업 기준으로 교육받은 정도를 물어 측정된 변수를 활용했다. 다만, 원자료에서는 그 범위가 무학 0, 초졸이하 1, 중졸 2, 고졸 3, 대학졸(4년제 미만) 4, 대학교졸(4년제 이상) 5, 대학원졸 이상 6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분석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0, 고등학교 졸업 초과는 1로 부호화한 가변수를 사용했다.

## 2) 가능요인

가능요인으로는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구 및 지역사회 자원과 관련된 변수로서 가족소득, 거주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유무, 부관계 만족도, 모관계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먼저, 가족소득은 응답자에게 지난 1년(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 동안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sup>10)</sup>을 묻은 내용을 활용했다. 원자료에서는 소득구간을 나눈 서열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되었는데, 그 범위는 50만 원 미만 1, 50-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6, 500-600만원 미만 7, 600-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9로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거주지역은 동부 1, 읍면부 0으로 부호화한 가변수

10) 소득은 세전수입(상여금,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포함)을 계산한 것이다(여성가족부, 2011).

를 사용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유무는 수급가구에 속해 있는 경우 1, 비수급 가구인 경우 0으로 역시 부호화한 가변수를 사용했다. 사회적 지지망 변수와 관련해서는 부, 모 관계 만족도를 사용했다. 부모관계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각각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어 본 변수를 사용했다. 다만, 점수가 낮을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는데, 그 범위는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 모 관계만족도를 합쳐 가족관계 만족도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행동에 대해 부, 모 각각에 대한 관계 만족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 3) 욕구요인

욕구 요인으로는 한국어 취약성 정도, 이중언어 유능욕구, 본인이나 인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욕구가 포함되었다. 먼저, 한국어 취약성 정도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가지 영역 각각에 대해 얼마나 잘하는지 리커트 5점 척도로 물은 내용을 변수로 사용했다. 원 자료에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잘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4개 항목 각각의 범위는 매우 잘한다 1, 잘한다 2, 보통이다 3, 못한다 4, 매우 못한다 5로 구분되었다(Cronbach's  $\alpha=0.953$ ).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항목의 점수를 총합하여 최종분석에서 활용했다. 이중언어 유능욕구는 앞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은지 리커트 5점 척도로 물은 내용을 변수로 사용했다. 이 역시 점수가 낮을수록 매우 그러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코딩하여 사용했다. 역코딩 된 항목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로 구분

되었다. 본인이 인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욕구는 종속 변수인 교육 지원 서비스 5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리커트 5점 척도로 물은 내용을 변수로 사용했다. 다만,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코딩 하였으며, 역코딩 된 5개 항목의 점수를 총합하여 최종분석에서 활용했다. 역코딩 된 5개 항목 각각의 범위는 전혀 필요없음 1, 필요하지 않음 2, 보통임 3, 필요함 4, 매우 필요함 5로 구분되었다(Cronbach's  $\alpha=0.812$ ). 이상과 같이 종속변수인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과 독립변수인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 분석에 활용된 변수 정리

변수		값		
종속 변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0-5점)	한국어 교육 경험	0=아니오 1=예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언어 교육 경험		
		한국사회 적응 교육 경험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문화 이해 교육 경험		
		학습 지원 경험		
독립 변수	선행 요인	나이	만 나이	
		성별	0=여자, 1=남자	
		중도입국여부	0=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 1=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가 능 요 인	교육수준 (졸업기준)	0=고등학교 졸업 이하, 1=고등학교 졸업 초과	
		가구소득	1=50만 원 미만, 2=50-100만원 미만, 3=100-200만원 미만, 4=200-300만원 미만, 5=300-400만원 미만, 6=400-500만원 미만, 7=500-600만원 미만, 8=600-700만원 미만, 9=700만원 이상	
		거주지역	0=읍면부, 1=동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 유무	0=비수급 가구, 1=수급 가구	
		부 관계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모 관계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욕 구 요 인	한국어 취약성 (4-20점, $\alpha=.953$ )	말하기	1=매우 잘한다, 2=잘한다, 3=보통이다, 4=못한다, 5=매우 못한다
			듣기	
			읽기	
쓰기				
이중언어유능 욕구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본인이 인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욕구 (5-25점, $\alpha=.812$ )	한국어 교육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언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 교육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문화 이해 교육 학습 지원	1=전혀 필요없음, 2=필요하지 않음, 3=보통임, 4=필요함, 5=매우 필요함		

## 제4절 분석방법

우선 본 연구의 기술통계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교육 지원 시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 문제 1을 검증하기 전에 활용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첨도와 왜도를 확인해 정상분포조건이 만족되고 있는지, 결측값 비율은 어떠한지,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통해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왜도의 분포는 절대값 3, 첨도의 분포는 절대 값 1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결측값의 비율은 10% 이내, 상관계수는 절대값이 0.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면 자료가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배병렬, 2011).

활용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최종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연구들은 데이터 행렬과 데이터 행렬을 통해서 추정된 행렬의 차이를 통해서 모형적합도를 검증하는 절대적합지수와 투입변수에서 모형을 형성한 것이 적절한지를 보여주는 증분적합지수를 통해서 모형적합도를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합지수로 카이스퀘어 값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했고, 증분적합지수는 IFI(Increment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Hu, & Bentler, 1999).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스퀘어 값은 작고 확률값이 크면( $p > .05$ )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반대로 카이스퀘어 값이 크고 확률값이 작으면( $p < .05$ )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배병렬, 2011). 본 연구와 같이 모형이 복잡한 경우 카이스퀘어 값을 통한 모형적합도 검증보다는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한 RMSEA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RMSEA는 주로 0.06미만이면 모형적합도가 좋고, 0.08미만이면 모형이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증분적합지수는 투입된 변수들인 기초모형을 바탕으로 최종모형이 적절하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로 IFI, CFI 모

두 0.90 이상이면 모형이 적합하고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Hu, & Bentler, 1999). 모형적합도를 확인한 이후에는 구조방정식모형의 조건부모형(Conditional Model)을 사용하여 연구 문제 1인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문제 1을 위해서 형성한 조건부 모형에 대하여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간에 예측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모형은 잠재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중집단분석을 위해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중도입국 여부에 따라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들이 다른지 구조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두 집단 의 세부 변수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모수 차이에 의한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비제약모델에서 개별 모수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두 모수의 차이는 z통계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두 모수의 차이가  $\pm 1.65$  이상,  $\pm 1.96$  이상,  $\pm 2.58$  이상이면 각각 유의수준  $\alpha=0.10$ ,  $\alpha=0.05$ ,  $\alpha=0.01$ 에서 유의적이라고 판단된다. 모수차이의 검증에 의한 방법은 비제약모델만 추정해도 되기 때문에  $\chi^2$  차이검증에 의한 방법에 비해 간단한 면이 있다.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에서 설정한 모형에 대한 추정은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모형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의 정보를 사용해 결측치를 추정하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 제4장 연구결과

연구 결과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와 자료가 분석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한 결과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최종 모델이 분석에 적합한지, 적합하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어떠한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다중집단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 제1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우선 연구대상자들의 선행요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2,504명(52.4%)이고, 여자가 2,271명(47.6%)으로 거의 균등하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13.51세(SD=3.95)로 나타났다. 중도입국 여부를 살펴보면 국내성장 청소년이 3,960명(82.9%), 중도입국 청소년이 815명(17.1%)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국내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자녀들이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478명(93.8%), 고등학교 졸업 초과가 297명(6.4%)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가능요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구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인 1,424명(29.8%), 100-200만원 미만인 1,235명(25.9%), 300-400만원 미만인 878명(18.4%)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동부가 63.2%였고, 읍면부에는 26.8%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비수급자가 4,470명(93.6%), 수급자가 305명(6.4%)이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부 관계 만족도는



평균 4.07점(SD=1.02)이었고, 모 관계 만족도는 4.31점(SD=0.89)이었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만, 특히 아버지 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욕구요인에 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족 청소년 스스로가 생각하는 한국어 취약성 점수의 평균은 5.60점(SD=3.08)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취약성 점수의 범위가 0점에서 20점까지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전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한국어 취약성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로 일상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83%였다는 연구 결과(전경숙, 2008)와 어느 정도 일치한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경우가 82.9%인 것을 감안하면, 어린 나이에 언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한국어에 대한 취약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추측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중언어 유능욕구는 평균 3.8점(SD=1.34)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일정수준 결혼이주 부모 나라의 언어를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파악되었다. 그리고 본인이 인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욕구는 평균 13점(SD=5.45)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점수의 범위가 0점에서 25점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전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욕구는 중간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수준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093명(64.8%), 하나의 서비스만을 이용해 보았다는 응답이 1,229명(25.7%),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다는 응답은 300명(6.3%)순이었다. 응답자 전체의 교육 지원 서비스의 유형은 평균 0.492(0.808)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유형은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욕구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Mean	SD	
선행 요인	나이				13.51	3.95	
	성별	남자	2,504	52.4			
		여자	2,271	47.6			
	중도입국 여부	중도입국	815	17.1			
		국내성장	3,960	82.9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478	93.8			
		고등학교 졸업 초과	297	6.2			
	독립 변수	가 능 요 인	50만 원 미만	92	1.9		
			50-100만 원 미만	323	6.8		
			100-200만 원 미만	1,235	25.9		
200-300만 원 미만			1,424	29.8			
300-400만 원 미만			878	18.4			
400-500만 원 미만			372	7.8			
500-600만 원 미만			173	3.6			
600-700만 원 미만			107	2.2			
700만 원 이상		171	3.6				
거주지역		읍면부	1,757	36.8			
	동부	3,018	63.2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수급 여부	수급	305	6.4				
	비수급	4,470	93.6				
부관계만족도					4.07	1.02	
모관계만족도					4.31	.89	
욕 구 요 인	한국어취약성				5.60	3.08	
	이중언어유능 욕구				3.80	1.34	
	본인이 인지한 교육지원서비스 이용욕구				13.00	5.45	
종 속 변 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0	3093	64.8	0.49	0.81	
		1	1229	25.7			
		2	300	6.3			
		3	102	2.1			
		4	39	.8			
		5	12	.3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을 분석하기 이전에 사용되고 있는 자료가 분석하기에 적합한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4-2>는 변수별 왜도, 첨도를 통해 정상분포조건을 확인하고 결측값의 비율을 나타내는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첨도와 왜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측값 비율을 살펴보면, 부와 모 관계만족도에서 각각 결측값이 발생하였고, 그 비율은 약 2%이내로 분석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므로, 본 자료는 분석에 적합한 결측값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4-2> 변수별 왜도, 첨도, 결측값 비율

변수		N	결측값 비율(%)	왜도(SD)	첨도(SD)
선 행 요 인	나이	4,775	0.0	.91(.04)	-.02(.07)
	성별	4,775	0.0	-	-
	중도입국 여부	4,775	0.0	-	-
	교육수준	4,775	0.0	-	-
가 능 요 인	가구소득	4,775	0.0	.09(.04)	1.06(.07)
	거주지역	4,775	0.0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 여부	4,775	0.0	-	-
	부관계만족도	4,698	1.6	-.89(.04)	.16(.07)
	모관계만족도	4,769	0.1	-1.12(.04)	.66(.07)
육 구 요 인	한국어취약성	4,775	0.0	2.28(.04)	5.36(.07)
	이중언어유능육구	4,775	0.0	-.78(.04)	-.59(.07)
	본인이 인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육구	4,775	0.0	.21(.04)	-.74(.07)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4,775	0.0	2.07(.04)	5.24(.07)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표 4-3>과 같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6을 초과한 변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을 통해 회귀모형을 생성하여 분석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IF) 기준치 2.5 이상, 허용값(tolerance) 기준치 0.4 이하로 나오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태근, 2006).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자는 전반적으로 모형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sup>11)</sup>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008											
3	.325**	-.046**										
4	.494**	-.031*	.104**									
5	.125**	.006	.030*	.129**								
6	.138**	-.006	.160**	.099**	.180**							
7	-.057**	-.022	-.030*	-.042**	-.284**	-.042**						
8	-.088**	.004	-.046**	.000	.130**	-.016	-.089**					
9	-.117**	-.004	.065**	-.039**	.048**	.014	-.036*	.527**				
10	.090**	.058**	.302**	-.013	-.019	.041**	.022	-.109**	-.061**			
11	-.045**	-.077**	.153**	.007	.074**	.023	-.024	.131**	.268**	.046**		
12	-.137**	-.023	.092**	-.048**	-.085**	-.049**	.042**	.021	.086**	.200**	.267**	
13	-.185**	-.060**	.058**	-.081**	-.049**	-.026	.034*	-.006	.040**	.126**	.140**	.301**

\*p<.05, \*\*p<.01, \*\*\*p<.001

11) 1.나이, 2.성별, 3.중도입국, 4.교육수준, 5.가구소득, 6.거주지역, 7.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여부, 8.부관계만족도, 9.모관계만족도, 10.한국어취약성, 11.이중언어유능욕구, 12.본인이 인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욕구, 13.교육지원서비스이용

## 제2절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

첫 번째 연구 질문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깰버그-앤더슨 모델에 기반하여 최종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자료가 이론에 따라 설정한 구조모형에 활용하기에 적합한지 평가해 본 결과는 <표 4-4>와 같다. 분석결과 절대적합 지수인 카이스퀘어 값이 20.678(df=17)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p>0.05$ ). 또한 카이스퀘어에 대한 대안적 적합도인 RMSEA는 0.007, 증분적합지수인 IFI, CFI가 0.999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 모형은 분석에 있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4> 최종모형의 모형적합지수

구분	수용기준	적합지수
$\chi^2$	$p>0.05$	20.678, df:17, $p=0.241$
RMSEA	0.06이하	0.007
IFI	0.9이상	0.999
CFI	0.9이상	0.999

구조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연구 모형으로 추정된 경로계수를 통해 연구 문제 1을 검증하였다. <표 4-5>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선행요인, 가능요인과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간 경로계수와 p-value 값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추정치이다.

우선, 선행요인에서는 나이, 성별, 중도입국여부( $p<.001$ )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할 때 나이는 증가할수록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덜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변수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덜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에 비해 교육 지원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능요인은 어떠한 변수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욕구요인에서는 한국어 취약성, 이중언어유능욕구, 본인이 인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욕구( $p < .001$ ) 모두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어가 취약할수록, 이중언어유능욕구가 높을수록,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교육 지원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5>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sup>12)</sup>

	구분	B	SE	β	C.R.	p
선행요인	나이	-.038	.003	-.186	-11.030	***
	성별	-.085	.022	-.052	-3.857	***
	중도입국여부	.132	.033	.061	3.983	***
	교육수준	.055	.052	.016	1.041	.298
가능요인	가구소득	-.003	.007	-.006	-.400	.689
	거주지역	-.005	.023	-.003	-.223	.8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유무	.034	.047	.010	.733	.464
	부관계만족도	-.015	.013	-.018	-1.132	.258
	모관계만족도	-.005	.015	-.005	-.331	.741
욕구요인	한국어취약성	.020	.004	.075	5.118	***
	이중언어유능욕구	.033	.009	.055	3.770	***
	본인이 인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욕구	.036	.002	.240	16.465	***

\*p<.05, \*\*p<.01, \*\*\*p<.001

12) 종속변수인 교육지원서비스 이용 변수를 더미 코딩(5가지 서비스 모두 이용한 경험 없음: 0, 5가지 서비스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 있음:1)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나이, 성별, 중도입국 여부, 한국어취약성, 이중언어유능욕구,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욕

### 제3절 다중집단분석 결과

앞서 다문화가족 청소년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 요인이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가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연구질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 실시에 앞서 중도입국 여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에 포함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평균나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16.33세, SD=4.63)이 국내성장 청소년들(12.93세, SD=3.5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국내성장 청소년들의 경우 남자가 1,842명(46.5%), 여자가 2,118명(53.5%)이었다. 반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남자가 429명(52.6%)이고 여자가 386명(47.4%)이었다. 이에 따르면 중도입국 여부에 따라 성비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국내성장 청소년들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759명(94.9%)이고 고등학교 졸업 초과가 201명(5.1%)이었다. 반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19명(88.2%)이고 고등학교 졸업 초과가 96명(11.8%)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교육 수준은 중도입국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많았으나, 중도입국 청소년 집단에서 고등학교 졸업 초과가 더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가능요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구소득은 국내성장 청소년 집단에서 200-300만원 미만인 1,191명(30.1%), 100-200만원 미만이 1,038명(26.2%), 300-400만원 미만이 705명(17.8%) 순이었다. 한편 중도입국 청소년 집단에서도 200-300만원 미만이 233명(28.6%), 100-200만원 미만이 197명(24.2%), 300-400만원 미만이

---

구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의 방향 역시 본 연구와 같았다.

173명(21.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국내성장 청소년 집단의 경우 동부가 2,364명(59.7%)였고, 읍면부는 1,596명(40.3%)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도입국 청소년 집단의 경우 동부가 654명(80.2%)으로 읍면부 161명(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국내성장 청소년들은 동부와 읍면부 거주자 비율이 비슷한 반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국내성장 청소년들은 비수급자가 3,694명(93.3%), 수급자가 266명(6.7%)이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비수급자가 776명(95.2%)이고 수급자가 39명(4.8%)으로 국내성장 청소년들과 비율은 비슷하나 수급자의 비율이 다소 낮았다. 국내성장 청소년의 부 관계 만족도는 평균 4.09점(SD=1.00)이었고, 모 관계 만족도는 4.28점(SD=0.91)이었다. 한편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 관계 만족도는 평균 3.97점(SD=1.15), 모 관계 만족도 평균은 4.44점(SD=0.78)이었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들이나 중도입국 청소년들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국내성장 청소년 집단이 높았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집단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욕구요인에 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성장 청소년 스스로가 생각하는 한국어 취약성 점수의 평균은 5.18점(SD=2.49)이었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평균 7.66점(SD=4.53)이었다. 이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 집단이 스스로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 국내성장 청소년들 보다 취약하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이중언어 유능욕구는 국내성장 청소년들은 평균 3.71점(SD=1.36)이었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평균 4.25점(SD=1.16)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도입국 청소년 집단이 국내성장 청소년 집단에 비해 한국어와 결혼이주민의 모국어를 함께 유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인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욕구는 국내성장 청소년들은 평균 12.78점(SD=5.31)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14.10점(SD=5.96) 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국내성장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내성장 청소년들은 평균 0.47개(SD=0.78),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평균 0.60개(SD=0.93)의 교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비해서 협소하였고, 집단별로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비해 국내성장 청소년이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더 협소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중도입국 여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sup>13)</sup>

변수		구분	국내성장	중도입국
선행 요인	나이		12.93(3.52)	16.33(4.63)
	성별	남자	1,842(46.5%)	429(52.6%)
		여자	2,118(53.5%)	386(47.4%)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759(94.9%)	719(88.2%)	
	고등학교 졸업 초과	201(5.1%)	96(11.8%)	
독립 변수	가 능 요 인	50만 원 미만	76(1.9%)	16(2.0%)
		50-100만 원 미만	272(6.9%)	51(6.3%)
		100-200만 원 미만	1,038(26.2%)	197(24.2%)
		200-300만 원 미만	1,191(30.1%)	233(28.6%)
		300-400만 원 미만	705(17.8%)	173(21.2%)
		400-500만 원 미만	315(8.0%)	57(7.0%)
		500-600만 원 미만	144(3.6%)	29(3.6%)
		600-700만 원 미만	91(2.3%)	16(2.0%)
	700만 원 이상	128(3.2%)	43(5.3%)	
	거주지역	읍면부	1,596(40.3%)	161(19.8%)
		동부	2,364(59.7%)	654(80.2%)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수급여부	수급	3,694(93.3%)	776(95.2%)
		비수급	266(6.7%)	39(4.8%)
	부관계만족도		4.09(1.00)	3.97(1.15)
모관계만족도		4.28(0.91)	4.44(0.78)	
육 구 요 인	한국어취약성		5.18(2.49)	7.66(4.53)
	이중언어유능육구		3.71(1.36)	4.25(1.16)
	본인이 인지한 교육지원서비스 이용육구		12.78(5.31)	14.10(5.96)
종 속 변 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0.47(0.78)	0.60(0.93)
		0	2,585(65.3%)	50.8(62.3%)
		1	1,036(26.2%)	193(23.7%)
		2	237(6.0%)	63(7.7%)
		3	62(1.6%)	40(4.9%)
		4	30(0.8%)	9(1.1%)
		5	10(0.3%)	2(0.2%)

13) 나이, 부관계만족도, 모관계만족도, 한국어취약성, 이중언어유능육구, 본인이 인지한 교육지원서비스 이용육구, 교육 지원서비스 이용은 Mean(SD) 제시, 나머지 변수들은 N(%)

다음으로 중도입국 여부에 따른 구조 동질성 검증을 위해 비제약 모델과 구조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델 간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4-6>의 결과와 같이  $\chi^2(11)=21.194(p<0.05)$ 인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1개 이상의 경로계수가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4-7> 중도입국 여부에 따른 구조 동질성 검증 결과

Model	$\chi^2$ (df)	$\Delta\chi^2$ (df)	RMSEA	IFI	CFI
Baseline Model	47.537(34)		.009	.998	.998
Constrained Model	68.731(45)	21.194(11)	.011	.996	.996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 국내성장 청소년 집단에 따라 경로계수 값이 달라질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즉, 비제약모델에서 얻어진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에 대한 비표준화 경로계수의 추정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7>과 같다.

첫째, 선행요인이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나이가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048이고,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의 경우는 -.031로 나타났다. 이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도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 $p<.001$ )과 국내성장 청소년( $p<.001$ )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이가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은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보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이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로계수는 -.185이고, 다문

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의 경우는  $-.064$ 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p<.01$ )과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 $p<.01$ )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은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보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에서 그 차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이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과 국내성장 청소년 두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능요인이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구소득, 거주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유무, 부관계만족도, 모관계만족도가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 두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욕구요인이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한국어 취약성이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012$ 이고,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의 경우는  $.026$ 으로 나타났다. 이 경로계수는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 $p<.001$ )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p<.10$ )의 경우는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이중언어유능욕구가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 $p<.001$ )의 경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그 경로계수는  $.037$ 이었다. 본인이 인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욕구가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로계수는  $.042$ 이고,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의 경우는  $.034$ 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p<.001$ )과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 $p<.001$ )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본인이 인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욕구에 따라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은 다문화가

족 국내성장 청소년보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수차이의 검증에 의한 방법으로, 두 모수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나이에 있어 두 모수의 차이가  $\pm 1.96$  이상인 것으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 수준 0.10에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 간에 성별, 가구소득이 교육 지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임계치 절대값 1.65보다 크게 나타나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이 교육 지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교육수준→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은 모수 추정치 값 -1.316, 거주지역이 교육 지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거주지역→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은 모수 추정치 값 -0.78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유무가 교육 지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유무→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은 모수 추정치 값 -0.517, 부관계만족도가 교육 지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부관계만족도→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은 모수 추정치 값 0.741, 모관계 만족도가 교육 지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모관계만족도→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은 모수 추정치 값 1.378, 한국어 취약성이 교육 지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한국어 취약성→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은 모수 추정치 값 1.604, 이중언어유능욕구가 교육 지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중언어유능욕구→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은 모수 추정치 값 0.546, 본인이 인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욕구가 교육 지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본인이 인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욕구→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은 모수 추정치 값 -1.301로 나타나 유의수준 0.10에서 임계치 절대값 1.65보다 작기 때문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8>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 다중집단분석 결과

제약모델		비표준화 계수(표준화계수)		z값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n=815)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 (n=3,960)	
선행요인	나이	- .048(-.240)***	- .031(-.141)***	2.007*
	성별	- .185(-.099)**	- .064(-.041)**	1.863 <sup>+</sup>
	교육수준	.147(.051)	- .011(-.003)	- 1.316
가능요인	가구소득	.025(.047)	- .011(-.023)	- 1.813 <sup>+</sup>
	거주지역	.054(.023)	- .009(-.006)	- 0.789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수급 유무	.098(.022)	.017(.005)	- 0.517
	부관계만족도	- .035(-.043)	- .010(-.012)	0.741
	모관계만족도	- .058(-.048)	.007(.009)	1.378
욕구요인	한국어취약성	.012(.058) <sup>+</sup>	.026(.083)***	1.604
	이중언어유능 욕구	.021(.027)	.037(.064)***	0.546
	본인이 인지한 교육지원서비 스 이용 욕구	.042(.266)***	.034(.233)***	- 1.301

<sup>+</sup>p<.10 \*p<.05, \*\*p<.01, \*\*\*p<.001

## 제5장 결론

### 제1절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 1. 분석결과 요약

우선 본 연구에서는 깰버그-앤더슨 모델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유용한 틀인지 확인하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를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였다. 또한 각 예측 요인들의 경로계수가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 집단별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해 본 결과, 깰버그-앤더슨 모델에 따라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정한 연구 모형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깰버그-앤더슨 모델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므로 계속해서 깰버그-앤더슨 모델의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선행요인에서는 교육수준 변수를 제외한 나이, 성별, 중도입국여부 변수가 각각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나이가 어릴수록, 남자보다 여자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들보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더욱 광범위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능요인에 포함된 가구소득, 거주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유무, 부관계 만족도, 모관계 만족도 변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욕구요인에서는 한국어취약성, 이중언어유능욕구, 본인이 인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욕구 변수가 각각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한국어취약성이 높고, 이중언어 유능욕구와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욕구가 클수록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꺾머그-앤더슨 모델에 포함된 요인들의 경로계수가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집단과 각각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구조 동질성 검증을 통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경로계수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계속해서 그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측요인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모수 차이에 의한 검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유의수준  $\alpha=0.05$  수준에서 나이, 유의수준  $\alpha=0.10$  수준에서 성별, 가구소득 변수가 두 집단 사이에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중집단분석의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나이 변수의 경우,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모두 나이가 많아질수록 교육 지원 서비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덜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다만,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들 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덜 광범위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 변수의 경우,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모두 남자 청소년인 경우 여자 청소년에 비해 교육 지원 서비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덜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다만,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남자일수록,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이 남자인 경우보다,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덜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의 경우,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집단의 경로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집단의 경우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더 광범위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 집단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덜 광범위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갤버그-앤더슨 모델을 통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을 확인해 보고, 그러한 예측요인이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집단과 각각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상기 요약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변수 별로 심화하여 논의를 진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은 나이, 성별, 중도입국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앤더슨 모델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 수준에 대해 분석한 김안나·최승아(2012)의 결과와 일치한다. 김안나·최승아(2012)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나이

가 많아질수록 한국적응관련 서비스(한국어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가족상담 및 교육, 자녀양육·학습),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의 이용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덜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한국 거주 기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언어 능력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초적인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이나 결혼이주 부모의 언어나 문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위의 교과과정 또는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초적인 언어 교육이나 문화 이해, 기본 교과목 지도를 위한 별도의 국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성별에 따라서도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의 예측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여자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 비해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덜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일반 청소년 대상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연구했던 Marcell 등(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가라는 설문 결과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들(28.4%)이 여자 청소년들(22.6%)에 비해 고민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여자 청소년들(32.4%)은 남자 청소년들(27.5%)보다 공부에 대한 고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자 청소년들이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나 행동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낮을 수도 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이에 더해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외국계 부모의 모국에 대한

관심이나 유학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이러한 의사는 이중언어 교육이나 결혼이주민 부모의 나라 이해 교육 등의 이용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도입국여부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들보다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자녀들에게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모국어에 가깝고,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에게는 한국어가 기본적으로 외국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조태린, 2013). 물론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자녀 또한 어휘력이나 표현력, 주요 과목들에 대한 성취나 이해도, 언어에 바탕이 되는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다문화가족이 아닌 청소년들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기초적인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나 교육 수준, 문화에 대한 이해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비해 높고, 다문화가족이 아닌 청소년들의 수준에는 근접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외국어로 인식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아닌 청소년들이나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들에 비해 주요 과목들에서 기초 학력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녀들의 수가 많다(김영란, 2013; 이정우, 2013; 조운동 외, 2013). 따라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어 교육, 기초 교육 과목 또는 그 언어의 배경이 되는 문화를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중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이순연(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유아기에 입국한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 보안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들 무렵 입국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들은 한국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수업 내용을 출생국의 언어로 배

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언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일부 학교의 경우 이중언어 강사는 정규 교과시간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방과 후에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교과 학습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외에도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를 둔 학부모 중 당장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중언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있어 중도입국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교육 수준 변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변수에 포함되는 5가지 서비스가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다. 사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본적인 한국어나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한 이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교과과정이 심화될수록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 부모의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주 부모의 언어나 문화는 학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나 성취가 향후 진로 선택에 있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과정이 심화될수록 결혼이주 부모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이한 성격의 교육 지원 서비스와 교육 수준과의 관계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가능요인은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가능요인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교육 지원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의 제한이 적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접근의 제한은 성별, 나이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이나 욕구 요인이 아니라, 인종, 민족성이나 건강 신념, 소득처럼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도록 돕는 요인들을 통해서 누가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예측이 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Andersen, 1995; Andersen, & Davidson, 2001).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족기본법이 2011년 개정을 거치면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 되었다. 이전까지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얻은 경우와 같은 한국계 중국인과 혼인하여 이룬 가족은 다문화가족이 아니었지만, 개정법 이후부터는 이들도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실혼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도 동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여성가족위원회, 2012).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능요인이 유의미하지 않은 사실은 '다문화가족' 자녀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인정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온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모형에 포함된 욕구 요인은 모두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한국어 능력이 취약할수록, 이중언어욕구가 높을수록,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교육 지원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욕구요인이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선행요인과 가능요인 보다 가장 직접적이고 큰 설명력을 갖는 요인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



(Borrayo 외, 2002)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은 서로 다르며, 특히 나이, 성별, 소득수준에서 예측하는 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나이와 관련하여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선행요인으로서 포함된 나이변수의 결과와 같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한국 거주 기간이 늘어나고, 학업적 성취보다 직업과 관련한 고민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에 비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덜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나타난 배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본국으로의 귀환 의사가 높기 때문에 당장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은진(2013)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대부분 모국문화 정체성과 자부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스스로를 모국인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나이와 관련하여, 20세 이상의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모국으로 귀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학교편입학과 취업이 어려워져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무력감과 좌절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교육 지원에 대한 이용의사가 낮을 수도 있음을 추론해 볼 수가 있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또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계민·조혜영(2012)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증가할수록, 입국한 후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을수록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 이상의 집단은 가족의 지지를 가장 적게 지각하면서 동시에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가장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입국하여 한국에 거주한 시간이 비교적 적은 10대 후반의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두 집단 모두 남자일수록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덜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이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에 비해 남자일수록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덜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탈학교 비율에서 성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조혜영·양계민(2012)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보다 탈학교청소년들이 더 많았으나, 여자의 경우 재학생과 탈학교 학생의 비율 간 차이가 10%이내인 반면 남자의 경우는 탈학교의 비율이 재학생의 비율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자연스럽게 공교육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교육 지원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남자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의 범위를 낮췄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한국국적 보유 비율에서도 남녀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자 중도입국 청소년들(58.0%)이 남자 중도입국 청소년들(45.8%)에 비해 한국국적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들의 경우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부여 받는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별도의 귀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

을 보유한 경우 공교육 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이 수월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자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남자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 보다 한국 국적 보유 여부가 높다는 것은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이를 만들어 내고, 또한 국내 성장 청소년들과 다른 역동을 만들어 내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가구소득 또한 두 집단 간에 교육 지원 서비스를 예측하는데 있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각 집단의 경로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그 방향성은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들은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교육 지원 서비스를 더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접근함에 있어 가능요인인 가구소득이 두 집단 사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두 집단이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서로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찾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사실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자녀들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경향이 있다(여성가족위원회, 2012). 이는 자기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특별하게 ‘다문화’라는 이름이 붙여져 지원을 받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의 교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소극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가구 소득이 충분히 뒷받침 된다면 시장에서 대체가능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형태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들에 비해 덜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지므로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 제2절 연구의 함의

### 1. 이론적 함의

첫째, 깰버그-앤더슨 모델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론적 틀에 기반 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서술적이거나 기술적 통계에 기반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처음으로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이해를 넓혔다는 함의를 갖는다.

둘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규명했다는 점이다. 물론 분석 결과와 같이 욕구요인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강한 요인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다문화가족 청소년 집단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 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 요인을 분석했고, 그 결과 욕구요인이 가장 강한 예측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또한 가능 요인이 국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이론적 기반 연구에 경험적 자료를 제공했다는 함의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는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의 예측 요인들이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하위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발견은 향후 다문화가족 청소년 집단 간 차이 관련 연구의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하위 집단에 따라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아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결과로, 향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중도입국 여부에 따른 하위집단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활용하였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모집단에서 확률에 근거하여 대표성을 가진 표본들로부터 해당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관련하여 이처럼 대표성을 가진 표본들을 확보하여 연구가 진행된 경우는 없으므로, 본 연구는 기존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의 연구들이 가진 일반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진다.

## 2. 실천적·정책적 함의

첫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나이, 성별, 중도입국여부와 같은 선행요인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나이와 관련하여 연령에 구분을 둔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연령대에 따라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 연령대의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교육 지원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는 교육 지원 서비스가 서로 연

관성 있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고 연령대의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의 범위가 협소해 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향후 진로에 맞춰진 심화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성별과 관련하여, 남자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의 범위가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특정한 이유 때문에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면, 남자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나 아웃리치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도입국 여부와 관련하여,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인이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이 한국인 다문화가족 국내 성장 청소년들은 기초적인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또한 본인들 스스로가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여성가족위원회, 2012).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서비스는 기초 한국어나 문화교육 보다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주요 과목에 대한 멘토링이나 이중언어 교육, 결혼 이주 부모의 본국 문화 교육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다문화가족이 아닌 청소년들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 교과목과 관련하여 학업 성취 수준이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자녀들 보다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서 가능요인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적 상황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교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균등한 서비스 접근이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적 상황이 향후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제공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거나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조건에 있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에 있어서 욕구 요인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욕구 수준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에 선행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교육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 수준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다문화가족 청소년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 욕구에 초점을 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들이 중도입국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한국에 입국하여 취약한 한국어 실력과 문화적응과 관련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후기 청소년기에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향후 성인기에 이르러 각종 사회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많이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한국어와 사회질서, 시민의식, 법질서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과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태어나고 자라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이 형성되어

이주하였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정서적 공감대의 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시민 사회 구성원으로 한국사회에서 적절히 공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양계민·조혜영, 2011). 다음으로 남자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아웃리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전략도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국내성장 청소년들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다른 전략을 취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점차 국경을 넘는 청소년들의 이주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결혼이주민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느껴 국내에서 출생한 어린 자녀를 이주 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자라 청소년이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주 노동자 자녀나 이주 노동 청소년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난민이나 기타 이유에 의한 이주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향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양계민·조혜영, 2011). 이처럼 한국사회의 다문화 구성원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구성원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세대를 위한 정책들은 국내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양한 이주민 집단과 이들 자녀는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여성가족위원회, 2012). 따라서 협소한 의미의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다양한 집단 간의 차이를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가족 청소년 정책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제3절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위와 같은 발견과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해 보고 향후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다문화구성원의 서비스 이용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던 문화적응 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주민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문화적응 변수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의 경우 대체 변수로 활용할 만한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 모형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변수를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향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할 경우 결혼이주민 부모의 출신 국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부모의 출신 국적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외모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심층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적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선 본 연구의 주된 연구 질문은 다문화가족 청소년 그 자체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깰버그-앤더슨 모델이 유용한 틀인지 밝히고, 이론에 따라 설정된 모델에서 주요한 예측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경우 결혼이주민의 출신 국적을 18개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어서 한꺼번에 모형에 투입시킬 수 없었다. 그리고 국적을 분류하여 집단을 만들고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여전히 그 핵심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배경이 되는 결혼이주민 부모의 출신국적을 변수에 포함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는 탐색적인 연구의 수행을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셋째,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깰버그-앤더슨 모델의 가능요인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론적 설명에 따르면 가능요인의 설명력이 높지 않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서비스 접근의 불균등 양상이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단순히 본 연구만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예측에 있어 가능요인 중 깰버그-앤더슨 모델 내의 추가적인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다중집단분석 결과 가구소득 변수가 두 집단 간의 교육 지원 서비스를 예측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집단의 경로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아 결과 해석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과 국내성장 청소년 두 집단이 가구소득에 따라 교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롭게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서비스만을 살펴보았을 뿐, 그들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었다. 사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총 9가지의 교육 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험 및 욕구에 관해서 조사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5가지 교육 지원 서비스 외 취업 및 상담 관련 서비스는 13세 이상에게만 조사를 해 활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포함하지 못한 다양한 교육 지원 서비스 유형의 이용 예측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르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육 지원 서비스 내에 포함된 5가지 서비스 각각의 이용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추후 각각의 서비스를 따로 분리하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실천적인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요인이 교육 지원 서비스를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 접근의 불균등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교육 지원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접근의 불균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지 못함으로써 해석에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접근의 제한이 발생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곱째, 본 연구는 횡단면적인 연구이므로 교육 지원 서비스와 예측 요인들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사실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 실시된 조사이다. 그러나 첫 번째 조사는 전수조사였고, 다문화가족 9세-24세 청소년 대상의 자료 수집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비록 2차에 걸쳐 수행된 실태조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변화에 따른 대상자들의 서비스 이용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가 없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다문화가족 대상의 패널 자료가 구축되어, 서비스 이용의 인과관계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행태를 예측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중 국제결혼을 통해 이뤄진 가정의 유형에만 집중함으로써, 그 외의 이주노동자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들을 배제하였다. 사실 다문화가족 자녀라 함은 일반적으로 한국인과 다른 민족이거나 문화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의 자녀를 말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주노동자 부부, 북한 이탈 주민 부부, 유학생 부부의 자녀 등을 다문화 배경의 자녀로 엄밀히 따져 보지는 않는다(송기철, 2013).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의 의미는 학교,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각각 다소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다(서강식, 2013). 국제결혼 가족은 물론이지만, 상기한 다른 유형의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 또한

많은 삶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Weathers 등(2008)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로 이뤄진 가정의 아동들이 부 또는 모가 외국 출생이거나 부모 모두 미국 출생인 가정의 아동들 보다 아동의 인종과 민족성에 상관없이 건강서비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라도 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한다(송기철, 2013).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뤄진 가족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패턴에 대해서 파악하고 본 연구의 대상자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의 배경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대중(2013). 중도입국 학생의 학교생활 분석. 26(2): 215-234.
- 강란혜(2010).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이민자 자녀교육 실태와 정부 지원 정책." 총신대논총. 30. 290-310.
- 강복정(2012).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의 현황분석: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5(1). 143-184.
- 강상경(2010).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이용 궤적 및 예측요인. 한국 사회복지학회. 62(3). 83-108.
- 강성중(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복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석사 학위 청구논문. 동명대학교.
- 강유진·강효진(2005).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8. 255-294.
- 교육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 \_\_\_\_\_ (2007).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보도자료).**
- \_\_\_\_\_ (2008).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 \_\_\_\_\_ (2009). **'09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계획 요약.**
- \_\_\_\_\_ (2010). **'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 \_\_\_\_\_ (2011). **2011년도 국제 문화부 다문화가정 교육계획.**
- \_\_\_\_\_ (2012a). **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보도자료).**
- \_\_\_\_\_ (2012b). **다문화가정 학생 5만명시대!(보도자료).**
- 김남희(2008). 마약류 의존자 치료재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9. 395-423.

- 김명정(2011).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교육문화연구*. 17(2). 55-76.
- 김안나·최승아(2012).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295-334.
- 김선희(2010).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아대학교.
- 김영란(20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초6 다문화 가정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도: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48. 125-151.
- 김유경(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1(-), 29-52.
- 김태근(2006). **u - Can 회귀분석**. 서울: 인간과복지.
- 김혜미(2012).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들의 서비스 이용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김흥주·박길태(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특징. 49(1). 93-128.
- 남성희·전종철(2013). 아동,청소년 다문화 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경향분석. *한국청소년학회*. 20(3). 129-159.
- 모상현(2011).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회균등. *한독사회과학회국제학술대회*. 2011(1). 41-54.
- 박경숙(2003).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55). 287-307.
- 박찬욱·지성애·김미경·이부미·채영란·김현경·김순자(2011). **유아 다문화 교육**. 서울: 창지사.
- 보건복지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 배병렬(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서문희·설동훈·최윤경·김은영·조혜주(2010).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 지원방안: 영유아·초등학생·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서강식(2013). 다문화 가정 학생의 인성 및 학습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제도적 지원 연구. (39). 73-99.
- 서지은·최현미(201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서비스 이용결정 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28(3). 23-43.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연구**. 여성가족부.
- 성상환·김명정(2010).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부.
- 송기철(2013). 다문화가정자녀교육의 한국어교육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8(1). 53-76.
- 송다영(2003).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3). 105-128.
- 양계민·김승경·박주희·정소희(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 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3-12.
- 양계민·김승경·김운영·정소희·이정미·박선영(20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 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12). 1-487.
- 양계민·조혜영(201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계민·조혜영(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 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양영자(2012). 다문화가정 학생 재유형화와 교육 접근법. 교육과정연구. 30(3). 323-352.

- 여성가족부(2011).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통계 개선방안.**
- \_\_\_\_\_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여성가족위원회(2012).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은순(2010).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실태 및 요구 분석. 한국다문화교육학회. 3(2). 37-69.
- 유진이(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13(1). 219-237.
- 유창준·김건태·임상호(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0(5). 19-26.
- 이삼식·최효진·박성재(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순연(2011). 서울 지역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교육의 현황과 교육 주체의 요구 조사. 이중언어학. 46. 215-236.
- 이인정(2004). 만성질환 및 기능손상노인 가족수발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6(3). 183-205.
- 이정우(20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과 학업성취도 특성. 한국사회과교육학회. 45(2). 257-291.
- 이재분(2011).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교육지원 방안.**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및 과제 진단 토론회(자료집). 21-36.
- 이주재·김순규(2010). 결혼이민 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30. 299-322.



- 이창호·최승희(2008).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실태 분석. 5(4). 87-109.
- 장명선·송연숙(2012).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전경숙(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 실태조사: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16(1). 167-185.
- 전경숙·이의정(2012).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조운동·장은주·고호경(2013). 2011년 수학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성취 특성 분석. 대한수학교육학회. 15(1). 179-199.
- 조태린(2013).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한국어가 갖는 의미. 인문과학연구. 41. 113-129.
- 조혜영(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정 및 적응지원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4(4). 311-335.
- 조혜영·양계민(2012). 중도입국청소년 학업실태 및 진로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141-16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2007). **2007 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은진(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과정과 유형 분석. 한국가족지원경영학회. 17(2). 195-218.
- 행정안전부(2013), **2013년 외국인주민현황**.

## 2. 국외문헌

- Aday, L. A. (1994). Health status of vulnerable population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15. 487-509.
- Andersen, R. M., & Newman J. F. (1973).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Health and Society*. 51(1). 95-124.
- Andersen, R. M. (1995).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1). 1-10.
- Andersen, R. M., & Davidson, P.L. (2001). Improving access to care in America: Individual and contextual indicators. In Andersen R. M, Rice T. H., & Kominski G. F. (1995). *Changing the U.S. health care system: Key issues in health services, policy and management(2nd ed. 3-30)*. San Francisco : Jossey-Bass. Inc.
- Bass, D. M., & Noelker, L. S. (1987). The influence of family caregivers on elder's use of in-home services: An expanded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2). 184-196.
- Bass, D. M., Looman, W. J., & Ehrlich, P. (1992). Predicting the volume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Integrating cognitive impairment into the modified Andersen framework. *The Gerontologist*. 32(1). 33-43.
- Borrayo, E. A., Salmon, J. R., Polivka, L., & Dunlop, B. D. (2002). Utilization across the continuum of long term care services. *The Gerontologist*. 42(5). 603-612.
- Bridges, A. J., de Arellano, M. A., Rheingold, A. A., Danielson, C. K., & Silcott. L. (2010). Trauma exposure, mental health,

- and service utilization rates among immigrant and United States-born Hispanic youth: Results from the Hispanic family study.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2(1). 40–48.
- Calsyn, R. J., & Winter, J. P. (1999). Predicting specific service awareness dimensions. *Research on Aging*. 21(6). 762–779.
- Gelberg, L., Andersen, R. M., & Leake, B. D. (2000). 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Application to medical care use and outcomes for homeless people. *Health Services Research*. 34(6). 1273–1302.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Huang, Z. J., Yu, S. M., & Ledsky, R. (2006). Health status and health service access and use among children in U.S. Immigrant Families. *Am J Public Health*. 96(4). 634–640.
-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3). *World migration report 2013*.
- Kao, D. T. (2009). Generational cohorts, age at arrival, and access to health services among asian and latino immigrant adults. *Journal of Health Care for the Poor and Underserved*. 20(2). 395–414.
- Lemming, M. R., & Calsyn, R. J. (2004). Utility of the behavioral model in predicting service utilization by individuals suffering from severe mental illness and homelessn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0(4). 347–364.
- Marcell, A. V., Klein, J. D., Fischer, I., Allan, M. J., & Kokotailo, P. K. (2002). Male adolescent use of health care services:

- where are the boy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0(1). 35-43.
- Mitchell, J., & Krout, J. (1998). Discretion and service use among older adults: The behavioral model revisit. *The Gerontologist*.. 38(2). 159-168.
- Rew, L., Resnick, M., & Beuhring, T.(1999). Usual sources, patterns of utilization, and foregone health care among Hispanic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5(6). 407-413.
- Rumbaut, R. G. (2004). Ages, life stages, and generational cohorts: Decomposing immigrant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Int Migr Rev*. 38(3). 1160-1205.
- Sarmiento, O. L., Miller, W. C., Ford, C. A., Schoenbach, V. J., Viadro, C. I., Adimora A. A., & Suchindran C. M. (2004). Disparities in routine physical examinations among in-school adolescents of differing latino origin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5(4). 310-320.
- Sarmiento, O. L., Miller, W. C., Ford, C. A., Schoenbach, V. J., Adimora A. A., Viadro C. I., & Suchindran C. M. (2005). Routine physical examination and forgone health care among latino adolescent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7(4). 305-316.
- Scott Jr L. D., McMillen J. C., & Snowden L. R. (2013). Informal and formal help seeking among older black male foster care youth and alumni.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14.
- UN(United Nations) (2012).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 Weathers, A. C., Novak, S. P., Sastry, N., Norton, E. C. (2008). Parental nativity affects children's health and access to care.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0(2). 155-165.
- Wilkinson-Lee, A. M. (2008).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Mexican-, Cuban-, and Puerto Rican- American adolescents: Examining Andersen's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izona.

### 3. 인터넷 홈페이지

통계청,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tat.nyp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 부록 - 설문지

### 1. 종속변수

변수	설문내용	구분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	당신은 학교 수업 이외에 아래와 같은 교육 또는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한국어 교육 경험
		2.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언어 교육 경험
		3.한국사회 적응 교육 경험
		4.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문화 이해 교육 경험
		5.학습 지원 경험
		0=아니오 1=예

### 2. 독립변수

① 선행요인 : 나이, 성별, 중도입국 여부, 교육수준

변수	설문내용	구분
나이	생년월일(양/음) _____년 ___월 ___일	본인기재
성별	성별	1=남 2=여
중도 입국 여부	당신은 지금까지 주로 어느 나라에서 살았습니까?	1=한국에서 계속 살았다 2=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다
교육 수준	최종학력(졸업기준)	0=안 받았음 (미취학 포함) 1=초등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4=대학교(4년제 미만) 5=대학교(4년제 이상) 6=대학원 이상

② 가능요인

변수	설문내용		구분
가구소득	<p>지난 1년(2011. 7. 1. ~ 2012. 6. 30.) 동안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소득은 세전 수입(상여금,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포함)을 계산합니다.</p>		<p>1=50만 원 미만                  2=50~100만 원 미만                  3=100~200만 원 미만                  4=200~300만 원 미만                  5=300~400만 원 미만                  6=400~500만 원 미만                  7=500~600만 원 미만                  8=600~700만 원 미만                  9=700만 원 이상</p>
거주지역	지역(동/읍면)		<p>1=동                  2=읍면</p>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유무	<p>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귀댁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g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p>		<p>1=예                  2=아니오</p>
부 관계 만족도	다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문항에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여 써주십시오.	1)아버지와의 관계	<p>0=해당 없음                  1=매우만족                  2=만족                  3=보통</p>
모 관계 만족도		2)어머니와의 관계	<p>4=불만족                  5=매우불만족</p>

③ 욕구요인

변수	설문내용		구분
한국어 취약성	당신은 한국어를 얼마나 잘 하십니까? 각 문항에 자기에게 맞는 번호를 선택하여 써주십시오.	1)말하기	1=매우 잘한다 2=잘한다 3=보통이다 4=못한다 5=매우 못한다
		2)듣기	
		3)읽기	
		4)쓰기	
이중언어 유능 욕구	다음은 평소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자기에게 맞는 번호를 선택하여 써주십시오.  ->앞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다.		0=해당 없음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이다 4=그렇지 않다 5=전혀 그렇지 않다
본인이 인지한 서비스 이용 욕구	당신은 학교 수업 이외에 아래의 교육이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문항에 자기에게 맞는 번호를 선택하여 써주십시오.	1)한국어 교육	1=매우 필요함 2=필요함 3=보통임 4=필요하지 않음 5=전혀 필요 없음
		2)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언어 교육	
		3)한국사회 적응 교육(문화 체험, 예절 교육 등)	
		4)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문화 이해 교육	
		5)학습 지원(국어, 영어, 수학 등)	



## Abstract

# Factors Associated with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Utilization among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Kwang Hyun, Ha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Korean society is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number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at are formed via international marriages is increasing at a faster rate. Furthermore,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groups that have distinguishable characteristics based on immigration experiences: (1) the adolescents who became a multicultural family after immigrating into Korea. Their immigration was due to the parent's remarriage with a Korean spouse, (2) the adolescents who are born and raised in Korea. Several measures are needed

for the adolescents; however, particularly policies and services focusing to enhance the educational support for them are more important. The reason lies on the assumption that these adolescents are facing more difficult situa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educational issues than experiencing emotional challenges or discrimination due to their physical appearance. Although, situations and problems differ among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their immigration experiences. Therefore, the Korean society should consider how to provide them with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to raise their general level of educational achievement, and improve their cultural knowledge of Korea. In order to reach such goals, the immigration experiences of them also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se circumstances, many actors such as the government, enterprises, and civil society have been increasing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for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However, only a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and often without a theoretical framework. Although the number of studies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social support services among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have increased recently in Korea, such studies have not analyzed the utilization social support services among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refore, in this study, I intend to point out factors which are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among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dditionally, I aim to explore the differences among the associated factors depending on their immigrant experiences. For these purposes, I used a data set from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for

analysis. I also applied 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Gelberg-Anderson model) from Gelberg et al. (2012)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I us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redisposing, enabling, need factors, and utilization of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I also conducted multiple group analyses to identify group differences in the paths leading to services utiliza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appears that the Gelberg-Andersen model is appropriate in predicting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among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Second, the predisposing factors and the need factor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respectively: (1) the predisposing factors include the age, gender, and immigrant experiences, (2) the need factors include the Korean vulnerability, needs for bilingual competence, and perceived needs for the utilization of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Third, the multiple group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o predic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educational services by age, gender, and family income.

In order to complement previous researches, I examined the utilization of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among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in the mentioned theoretical framework and national representative samples. In the results section, I showed that the Gelberg-Anderson model is suitable to predict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educational services and the factors that can predict educational services utilization.

Furthermore, I demonstrated that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have different relationships depending on their immigration experiences in the explanatory level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ies, I suggest that the Korean society should consider the predisposing factors and the need factors when providing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to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dditionally, I suggest that the Korean society needs to reorient and seek different strategies for providing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This can be achiev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sub-groups divided based on the immigration experiences among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Educational Support Service Utilization, the Gelberg Anderson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ultiple Group Analysis

**Student Number:** 2012 - 20130